

발간 등록번호

56-3650107-000009-01

만성보와
보학문화



'한·월드' 휴 문화 중심도시 대전중구
한국족보박물관

만성보와
보학문화



'원'월드' 호 문화 중심도시 대전중구
한국족보박물관



만성보와 보화문화



대전 중구는 효월드를 육성하고(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국책사업인 효문화진흥센터를 유치하여 건립하고 국가지정유망축제인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효문화 진흥과 확산을 구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효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 사상과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마음을 계승하기 위하여 2010년 개관한 한국족보박물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족보 전문 박물관입니다. 한국족보박물관에서는 분파도, 족보산도, 향렬표, 중부, 독립운동가의 족보 등 족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매년 특별전시를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족보대학, 어린이박물관 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라져가는 족보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족보 자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집 활동을 하여 문화재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박물관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 중 조선후기 보학의 발달에 따른 만성보, 대동보, 잠영보 등의 종합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보나 특수형태의 가계보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전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것입니다. 보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주요 씨족들과 그들 각 씨족 내 주요 계파들의 내력이라든지 또는 그들 각 씨족 내지 각 계파에서 배출된 주요 인물들의 가계적 배경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뜻합니다. 즉, 보학은 우리의 전통사회구조와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소외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보학의 발달과 함께 보학의 대가도 다양하게 출현하였고 점차 이야기꾼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이런 보학과 보학답이 나란히 존중되는 사회적 조류는 거의 최근까지도 이어져왔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족보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의 보학 문화의 전모를 보여주는 “만성보와 보학 문화”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학담 이야기의 대본 혹은 교과서가 되는 동영보휘, 잠영보 등의 만성보 계열의 족보 자료를 모아 전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씨자료집, 한민족 족보사전 등 현대에도 출판되고 있는 만성보를 함께 전시하여 족보 문화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문화적 전통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간 130만 명에 이르는 뿌리공원 방문객에게 우리 조상의 족보 문화에 대한 우수함을 알리고, 효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구정 방침에 찬동하여 귀한 자료를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신 여러 문중 어르신들과 충남대학교 황인덕교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용갑**

보학의 발달과 만성보의 등장

17세기 이래 만들어진 만성보

조중운(1607-1683)의 『씨족원류 氏族原流』 7권 : 풍양조씨의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실전된 조상 계보를 확인하다가 다른 문중의 가계도를 그려 넣으면서 만들어짐. 약 540개 문중의 계보가 그려짐.

정시술의 『동국만성보 東國萬姓譜』 18권

임경창의 『성원총록 姓苑叢錄』 29권 : 현재 전해지지 않음

19-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만성보

이창현 『성원록 姓源錄』 10권 : 역관이나 의관 등 기술계 종사자의 중인층 계보를 밝힘. 조부 때부터 3대에 걸쳐 수정 보완.

『백씨통보』 46권 : 50개 본관과 160개 성을 대상으로 하여 10간으로 수록한 족보로, 구희서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

『동국만성잡영보 東國萬姓簪纓譜』 1916년 목활자본

윤창현 『조선씨족통보』 1924년

송윤식 등 『청구씨보』 1925년

윤직구 『만성대동보』 1931년 : 근대 활자로 발간된 최초의 만성보. 상하 두권으로 출간되었는데, 미수록 문중의 항의로 2년 뒤 속편을 출간.

조선후기 보학이 발달하면서 각 성씨별로 이름을 날린 가문을 종합하여 수록하는 종합보 즉 만성보류가 발달하였다. 『만성보』류는 대체로 각 성관별로 나누었으며, 왕성인 전주 이씨를 서두에 두는 것이 보통이었다. 계보의 기록방식은 한 면을 10단 내지는 12단으로 나누어 선대부터 하대까지 수록하였고, 『세보』 등에서 계보를 수록하는 방식으로 시조부터 후손까지 수록하였다. 개인적 사항은 지면 관계상 간단히 벼슬 관직을 기록하는 정도였다.

- 성봉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록 中

조선은 가히 보학의 나라라 할 만큼 많은 족보를 간행해왔다. 여러 씨족의 족보를 종합한 계보서인 『만성 대동보』를 비롯해 『청구씨보』나 『조선씨족통보』등이 그것이다. 『동국씨족보』나 『백씨통보』는 한국의 씨족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러한 종합보가 일찍부터 발달했다는 것이 한국 가계 기록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특색 중 하나다.

- 박홍갑, 우리 성씨와 족보 이야기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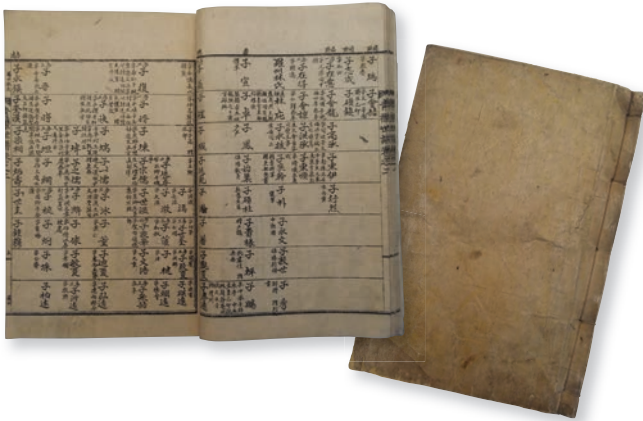
유교사회의 진전에 따라 종법적 가족, 친족제도의 수용과 함께 보학(譜學)의 숭상과 족보 편찬이 성행하였다. 내외친척과 종족 내부의 의례를 규제하는 것이 예학이라면, 보학은 종족의 종적인 내력과 획정한 족파관계를 확립시켜 주는 기능을 하였다. 족보 편찬의 목적은 무엇보다 종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 친목활동을 활발히 하며, 동족 내부의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관 문제와 신분을 증빙하는 자료는 양반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관심이 고조되어, 거기에 관련 되는 보첩류가 17세기 이후로 내려올수록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 이수건, 족보와 양반의식 中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성종은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을 만들게 하였고, 홍여하(洪汝河)는 보학에 뜻을 두어 『해동성원(海東姓苑)』을 지으면서, “근세 이래로 보첩학으로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현감(縣監) 조중운(趙仲耘)이 만든 『씨족원류(氏族原流)』와 전부(典簿) 정시술(丁時述)이 만든 『제성보(諸姓譜)』가 더욱 박흡(博洽)하다고 이름나서 세상에 성행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씨성보의 범위를 넘어 모든 씨성의 족보를 합쳐서 만드는 만성보와 같은 것도 일찍부터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송찬식, 족보의 간행 中



01

청금세보 靑襟世譜

1942 / 19.3×28.6 / 김세신 기증



02

동국성보 東國姓譜

1850년 이후 필사 / 21.7×32.5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03

동국씨족고 東國氏族攷
1907 / 18×27.8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04

동국명현수록 東國名賢隨錄
1911 / 21×32.6 / 김세신 기증





05

동영보휘 東英譜彙

1860년대 이후 필사 / 19.8×31.2 / 김세신 기증



06

동명록 東名錄

1840년대 이후 필사 / 20.2×21.7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07

동국명현록 東國名賢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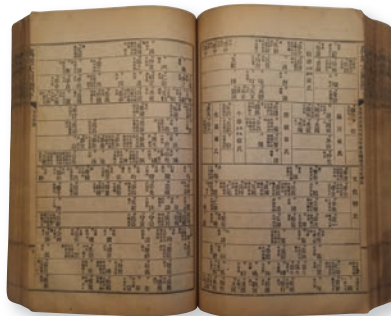
조선 후기 / 86×8.5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08

명현보목 名賢譜錄

조선 후기 / 15×20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09

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

1931 / 18.5×26 / 류구상 기증

특수 족보의 흔한 유형으로 의술을 담당하는 관리인 의관(醫官)과 외교 현장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譯官) 등의 가계를 전문적으로 정리한 가계 기록이 있다. 이 가계 기록은 ‘팔세보(八世譜)’라고 하는 독특한 기록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록된 인물을 기준으로 일정한 대수의 직계 조상을 추적한 형태이다. 그 내용은 직계로 8명의 부계 조상과 외조 및 처부(妻父, 장인)를 차례로 기록하는데, 기준이 되는 본인을 포함하면 총 11단으로 구성된다. 팔세보도 시조를 기준으로 한 성관별 족보가 아니라, 개별 인물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성관이나 가문이 아닌 비슷한 직종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 기록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팔세보는 특정한 직책이나 과거의 분야에 따라 명문 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정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양반 가문 중에서도 각각 문무과 급제자를 다수 배출하는 문반 또는 무반 가문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현상이거니와, 대를 이어 의관이나 역관에 종사하고 의과와 역과 입학자(入格者)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가문이 나타난 것은 ‘중인’이라는 신분층의 형성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 권기석, 족보, 왜 사대부에게 꼭 필요했는가 中

문보(文譜)

『문보(文譜)』는 문과 급제자들에 관한 인명록 또는 문사록(文士錄)이다. 조선은 양반관료사회였기 때문에 양반으로 관직에 진출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계승하는데 중요한 일이었다. 조선사회에서 관직 진출에 가장 기본적인 길이 문과였고, 문과의 급제야 말로 급제자 자신은 물론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이었다. 따라서 조선사회에서는 가문에서 문과 급제자를 몇 명 배출하였느냐에 따라 그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문보』가 작성되었다. 『문보』의 기재 방식은 전주 이씨를 서두로 각 성관별 급제자를 『팔세보』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각 급제자의 경우에는 성명·자(字)·출생연도 및 출신과거의 연도와 과방의 종류를 기재하고, 아래로 부·조·증조·고조 순으로 8대까지 부계 직계를 기록하였다. 다시 그 아래에 외조부 및 처부의 성명과 관직을 기록하였다.

무보(武譜)

『무보』는 무과 급제자의 가계를 성관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은 특수보이다. 수록 방식은 『팔세보(八世譜)』의 형식에 따라 본인을 기점으로 부·조부·증조·고조 순으로 8대까지 부계의 직계 조상을 수록하고, 이어서 외조부와 처부 등을 기록하였다. 『무보』의 체계는 무과의 급제자를 전주 이씨를 필두로 각 성씨별로 편찬하고, 성씨 내에서는 본관별로 편집을 하였다. 다만 전주 이씨의 경우는 월등히 많으므로 이를 다시 파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장서각소장 무보에는 54개 성에 155개 본관으로 총 1,730명이 수록되어 있다.

진신보(摺紳譜)

『진신보 摺紳譜』는 과거 합격을 통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계보를 수록한 족보다. 문과 출신들의 명단을 뽑아 모았다는 뜻으로 ‘문초 文抄’라고도 한다.

음보(蔭譜)

『음보』는 조선시대에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들의 가계를 수록한 특수보이다. 『음보』는 조선 후기 신분제변동에 따라 가계의식이 강화되면서, 음직 출신의 관직자들도 자신들의 가계를 다른 『문보』나 『무보』처럼 하나로 묶어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체계는 당대에 활동하고 있는 음직 출신의 인물들을 각 성씨별로 나누고, 성씨 내에서는 본관별로 편집을 한 것이다. 각각의 인물에 대하여서는 입사연도와 역임관직 등 개인적인 사항들을 기재하고, 8대 또는 10대까지의 직계조상들과 외조와 처부의 성명과 관직을 기록하였다. 『음보』는 장서각에 5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음관세보(蔭官世譜)』와 『삼반팔세보(三班八世譜)』 등의 『음반(蔭班)』 부분도 같은 성격의 종합보이다.

팔세보류(八世譜類)

조선후기 신분제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양반 지배관료층을 중심으로 한 문벌들은 자신들 가문의 존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지배층이 마주선 사회적 위기 속에서 신분적 의미를 갖는 동일한 직역(職役: 직업)을 중심으로 자신들 가문의 세계(世系)를 하나로 묶어 편찬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편찬하여 발간된 일종의 족보를 본인의 8세까지 수록된다 하여 『팔세보(八世譜)』라 한다.

『팔세보』는 일반 족보가 시조를 기점으로 후손을 적어 내려오는 방식인데 반하여 본인을 기점으로 하여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본인을 상단에 두고 아래로 부친, 조부, 증조부, 고조부 등 8대조를 차례로 기재하고, 그 하단에 외조부와 처부를 기록하여 1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팔세보의 종류는 『문보(文譜)』·『무보(武譜)』·『음보(蔭譜)』·『진신보(摺紳譜)』·『역과보(譯科譜)』·『의과보(醫科譜)』·『주학팔세보(籌學八世譜)』·『남보(南譜)』·『북보(北譜)』 등 다양하다.



10

연광우 교지 教旨

1846 / 69.5×94.5 / 연제역 기증



11

이형옥 교지 教旨

1722 / 66.5×96 / 이영진 기증



12

조선국과보 朝鮮國科譜

1890년대 이후 필사 / 19×20.7 / 김세신 기증



13

강진김씨과환록 康津金氏科宦錄

1875 / 20.8×32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14

과보 科譜

1850년대 이후 필사 / 18.6×28.7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15

국조문과보 國朝文科譜

1890년대 이후 필사 / 19×20.7 / 김세신 기증



16

무보 武譜

조선 후기 / 20.5×31.7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17

사마방목 司馬榜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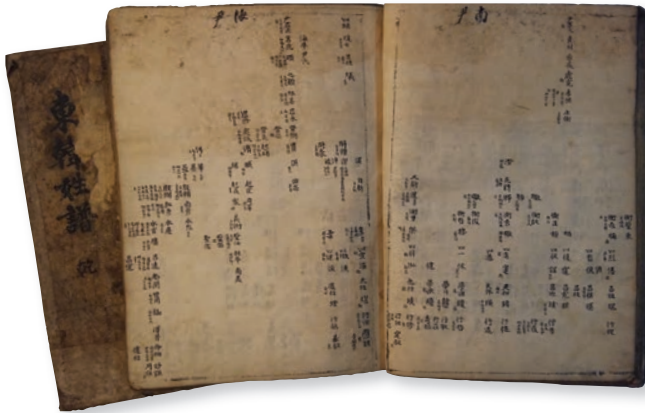
1855 / 23×36 / 조원환 기증



18

등과표 登科表

1853년 이후 / 23×35.5 / 조원환 기증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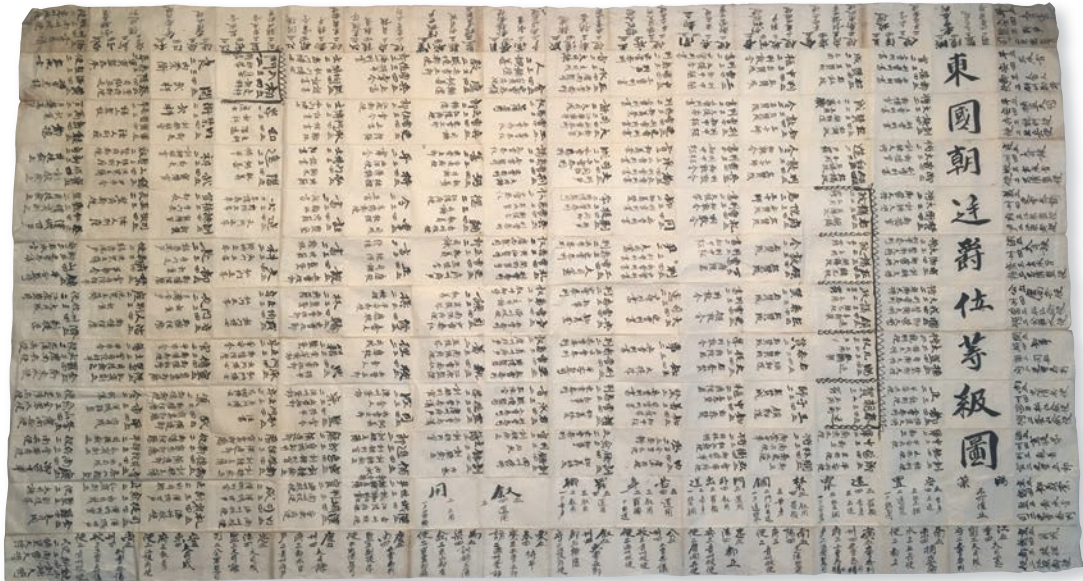
동한성보 東韓姓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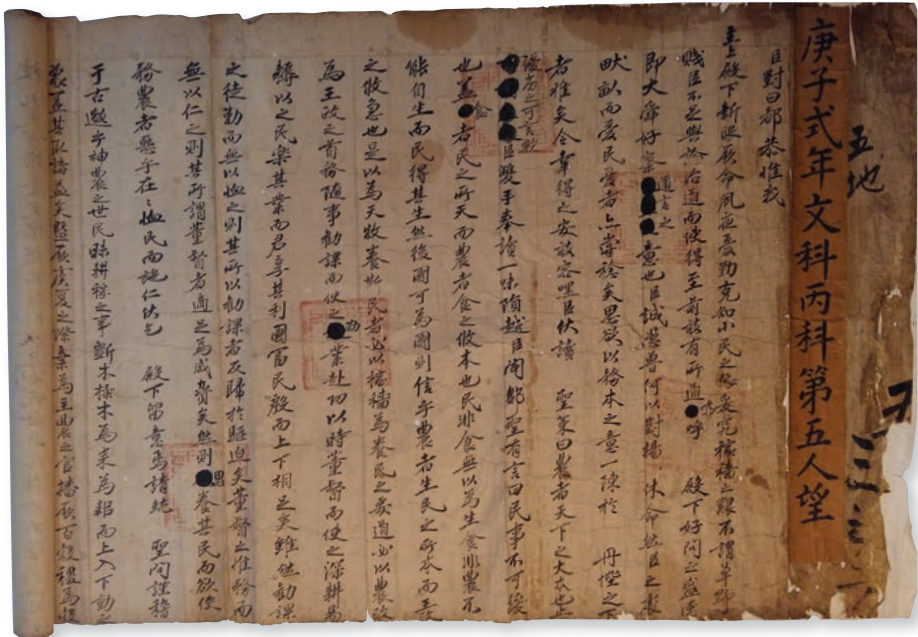
18세기 / 31×39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20

승경도 陞卿圖

조선 / 106×58.5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21

시권 試券

1722 / 255×65 / 이영진 기증



22

만성보(문음보) 萬姓譜(文蔭譜)

조선 후기 / 17.4×28.4 / 한국국족박물관 소장



25

전남도청금 全南道靑襟

1861 / 19.8×31.2 / 권용집 기증

가문 단위로 정치적 입장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손을 조상의 분신으로 보고 조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문중 문화의 속성 때문이다. 족보가 유행하면서 사족이라던 어느 성관, 어느 현달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행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사족이라던 누구나 ‘문중 네트워크’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기에 그 제약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족보에 대한 학문, 이른바 보학은 문중 네트워크에서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상식을 모아 놓은 것이었다. 양반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이 생면부지의 다른 양반과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어떤 문중 공동체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했고, 이에 따라 보학 지식의 교환은 양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았다.

- 권기석, 족보, 왜 사대부에게 꼭 필요했는가 中

남보(南譜) · 북보(北譜)

『남보』는 당색이 남인이었던 남인(南人)의 주요 가계를 수록한 특수보이다. 『남보(南譜)』는 방위 개념에 따라 『오보(午譜)』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남인을 오인(午人), 서인을 유인(酉人)으로 별칭한 것에서 온 것이다.

『남보』는 각 성씨(姓氏)아래 본관별(本官別)로 편차(編次)하였다. 『남보』에 수록된 성씨의 순서는 그 성씨에 달린 본관수가 많은 성씨부터 수록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남보』의 보도(譜圖)는 20개단에 시조(始祖)로부터 수록하였고,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간결하게 기록하였다.

『남보』와 같은 방식으로 조선후기 당색이 북인으로 분류되는 가문을 수록한 것이 『북보(北譜)』이다.

북보(北譜)는 소북 봉당(朋黨)의 당원명부라 할 수 있다. 소북인사의 선조와 자손까지 기록하여 소북 28성 69가의 파보(波譜)를 모은 것이 되므로 흔히 제가보(諸家譜)라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북보는 언제부터 누가 편찬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1599년 소북형성 초기의 명부로부터 시작하여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정 보완됐으리라 믿어진다. 현존하는 북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780~1790(정조 4~14)년에 편찬된 청풍김씨 가본(家本)이라 인정되고 대부분은 고종시대인 1800년대 후반에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



23

남보 南譜

조선 후기 / 21×31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24

남인성보 南人姓譜

1856 / 17×22.5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북보 北譜 (복제)

1800년대 후반 / 21×28.5 / 소북동일회 기증



소북동일회 회원수첩

2011 / 10×15.5 / 소북동일회 제공

| 고금 관작 대조표(古今官爵對照表) |

기관 계급	입법부	정부 기관	지방 행정	대학	군인	사법부	외교 통상부	경찰계	교육부	정부 투자 기관	일반 행정부	조선시대		
												관직	품계	
	국회 의장	대통령				대법 원장								
		국무 총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1품	
		부총리										좌찬성 우찬성	중1품	
		장관 차관	도지사		대장	대법원 판사	장관 차관	본부장	장관 차관 교육감		장관 차관	판서 좌참찬 우참찬	정2품	
		차관보		학장	증장	법원장 집사장	차관보					參判 (참판) 관찰사 (觀察使)	중2품	
1급		관리관		주임교수	소장	2호 이상 판검사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參議 (참의) 牧使 (목사) 鄕廳府使 (도호부사)	정3품 (당상관)	
2급		이사관 (국장)		교수	준장	4호 이상 판검사	이사관	치안정감	부교육감	이사	이사관	執義 (집의) 司諫 (사간)	중3품	
3급		부이사관 (3년 이상)		부교수	대령	6호 이상 판검사	부이사관	치안감		이사 (3년 이하)	부이사관	郡守 (군수) 司人 (사인) 掌書 (장평)	정4품	
					중령							經歷 (경력) 僉正 (첨정)	중4품	
4급		서기관 (과장)	군수 부군수 국장	조교수	소령	9호 이상 판검사	서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교장 (6호 이상)	부장	서기관	縣令 (현령) 判官 (판관) 持平 (지평)	정5품	
5급		사무관 (계장)	과장 (면장)	전일강사	대위		사무관		교감 (9호 이상)	과장(차장)	사무관	正郎 (정랑) 校理 (교리)	중5품	
												佐郎 (좌랑) 監察 (감찰)	정6품	
												縣監 (현감) 察訪 (찰방)	중6품	
6급		주사	주사 (계장)	전일강사 (2년 미만)	중위		주사	경감 경위	21호 이상	계장(대리)	주사	博士 (박사)	정7품	
7급		주사보 서기	주사보	조교	소위 준위		주사보	경사	30호 이상	평사원 (3년 이상)	주사보	直長 (직장) 著作 (저작)	중7품 정8품	
8급		서기	서기		상사 중사		서기	경장	31호 이하	평사원	서기	正字 (정자) 訓導 (훈도)	정9품	
9급		서기보	서기보		하사		서기보	순경		평사원	서기보	참봉	중9품	

고금 관작 대조표(古今官爵對照表)

한상익, 족보편찬 실무집 중

보학
전문가와
보학담
이야기 문화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보학’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오늘날 족보학이란 말을 예전 어른들은 간단히 보학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것은 양반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양반으로서의 전통성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에 동반하여 족보가 성행하던 풍조와 대략 병행되어 나간 사회적 현상이었다.

이때의 ‘보학’은 오늘날과 같은 체계적인 학문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학에 대한 여러 지리한 종합적인 지식을 ‘학(學)’이라고 높여 부르게 된 것이다. 이것을 굳이 ‘학’이라고까지 부른 것은 조선조 시대에 족보와 관련한 여러 지식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중시되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조선조 이후에 이들 보학에 능하다거나 밝다고 소문난 선비들, 즉 보학자들이 다양하게 출현하였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은 인물로 부각되어 평가되곤 했다. 한국의 역사에서 보학담 이야기꾼은 바로 이러한 오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존재가 점점 부각되는 일면, 점차 특수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보학과 보학담이 나란히 존중되는 이러한 사회적 조류는 거의 최근까지도 지속되어온 것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가 보여준 중요하고도 특이한 문화전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오랜 전통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 황인덕, 보학(譜學)담 이야기꾼의 사례 고찰 中

초기 족보는 계보 추적에 각별한 열정을 가진 선구적인 사람들이 주도했는데, 이들은 보학의 창시자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계보뿐 아니라 당대 명문가의 계보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구보(口譜)’ 또는 ‘육보(肉譜)’ 등으로 지칭되며 여러 가문의 족보 편찬에 큰 도움을 주었다.

1606년의 경주 배씨 족보를 편찬한 배용길(裨龍吉)의 조부 배천석(裨天錫, 1511-1573)은 내외가(內外家)의 여러 족보를 모아 가승(家乘)을 만들었는데, 그는 족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서 ‘구보(口譜)’라고 불릴 정도였다. 정곤수(鄭崑壽, 1538-1602)는 당대의 가장 이름난 족보 전문가로서 족보 수집에 매우 열중했으며, 여러 성씨의 족보 제작에 거듭 참여하거나 조언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17세기 이후 족보가 사족 사회에서 보편화되면서 족보는 사족들의 ‘교양 필수’가 되었다. 자신의 계보뿐 아니라 조선의 대표적인 명족 가문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 했다. 보학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계보 지식을 망라해놓은 자료가 흔히 ‘만성보(萬姓譜)’로 불리는 종합 족보이다. 이는 여러 성관 족보에서 현달한 인물을 배출한 대표적인 가계를 뽑아 정리하여 일종의 ‘족보 백과사전’처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록은 족보 간행이 성행한 18-19세기 이후에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성씨와 파계를 단위로 한 ‘가격(家格)’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조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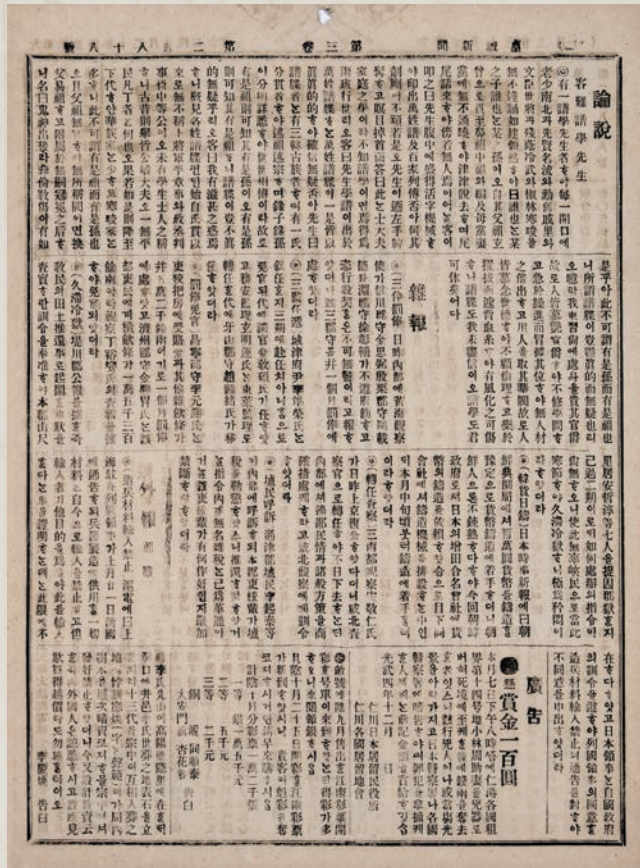
- 권기석, 족보, 왜 사대부에게 꼭 필요했는가 中

족보는 그 집안의 신분, 당색, 학문적 취향이나 사회적 성향 등을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각종 종합보는 이 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개별 씨족보로는 알기 힘든 정보를 제공한다. 문보, 무보, 음보(蔭譜), 그리고 이 셋을 합친 삼반세보(三班世譜)는 집안들의 관직 성향에 초점을 맞춘 종합보다. 북보(北譜)는 폐쇄적인 당쟁 상황에서 나온 당색보(黨色譜)다. 보화자들은 주요 인물들의 관력과 통혼, 그리고 직서 관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성씨나 계파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정리하여 종합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보에 대한 감식력도 뛰어난 수밖에 없었다.

1900년 12월 14일자 『황성신문』에 보화자를 희화화한 이야기가 나온다.

황성신문 원본

1900년 12월 14일자 보화선생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허구를 실제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상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아직도 유효한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1924년에 출간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通譜)』(윤창현 저)는 종합보이긴 하나 조금 특이하다. 성씨에 대한 고차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성(賜姓)·개성(改姓)·모성(冒姓)·복성(復姓)·변성(變姓)·구성(舊姓)·신성(新姓)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가문이나 신분은 불문에 붙이고 웬만한 보학으로는 알 수 없는 성씨까지 관련 문헌 자료와 함께 수록하여 성씨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다.

— 정승모, 한국의 족보 中

황성신문 번역문

어떤 보학선생이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하면 노소 남북 당색에 대한 이야기와 선현명류(先賢名流)와 훈구척리(勳舊戚里)와 문신세장(文臣世將)과 잔음냉무(殘蔭冷武)와 초림한준(椒林寒峻)에 대한 지식을 읊는 데 걸림이 없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이며, 고모부까지는 물론 비조(鼻祖)와 종조(中祖), 모당(母黨)과 처당(妻黨)에까지 두루 훤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객이 물어보기를 “선생의 뱃속에는 활자기계가 들었소. 마치 만성보와 백기염전을 인출이라도 하듯이 판에 새긴 것처럼 옳은 말만 하시요.” 하고 말을 거니 선생이 수염을 쓸며 눈을 감고 머리를 바로 하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사대부의 가정지학(家庭之學)이라 보학을 모르면 어찌 양반 행세를 하리오”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선생의 보학이 만성보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책은 모두 진실되어 의심할 것이 없겠소”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보첩이라는 것은 삼한의 옛 씨족이 있어 일개의 씨가 분관하여 조종을 기술하고 자손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고 상세하며 또 대대로 전해져 내려 온 것이요, 고로 조상이 있으니 자손이 있는 것이고 자손이 있으니 조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보첩을 어찌 의심한단 말이오”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 대개 각성의 보첩을 보면 싸인이 생긴 이래로 모두가 상장군평장사(上將軍平章事)라 하고 정승(政丞), 판사(判事), 시중(侍中)이 아닌 자 없으되 학생이나 선비라 칭한 자는 없으니 옛날에는 모두가 공경대부(公卿大夫)이고 평민 범정(平民凡丁)은 없었던 것이요, 과연 그렇다면 아래대로 내려와 화족가(華族家)는 적고 한준가(寒畯家)는 많으니 이것이 그 조상에 그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지요. 또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이 없어 문벌을 칭할 수 없으면 환부역조하여 벼슬은 했으되 손이 없는 자의 후손으로 부속시키니 이름하여 귀신출후(鬼神出後)라고 하였소. 인륜을 어그러뜨림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그 자손을 통해 조상을 알 수 없다고 한 이유요. 어찌 이것이 진실이며 의심할 바 없는 것이라고 하겠소.”하였다.

보학담 이야기꾼 김상묵

김상묵 어른은 가정배경·가치관·이력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의 보학문화를 충실하게 담지해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지닌 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기에는 뛰어난 기억력과 이야기에 대하여 남달리 깊은 기호를 지니고 있어 보학담 이야기꾼으로서의 진면을 매우 잘 보여주는 분이기도 하다.

나는 그동안 여러 유형의 이야기꾼을 대했지만, 이분처럼 자기 세계에서 독자적인 이야기꾼으로서의 특징을 잘 지닌 분을 대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보학문화 속에 폭 젖어서 살아오는 가운데, 걸어다니는 보학사전 같은 기억력을 지니고, 언제 어디서나 보학담을 즐겨 구연하면서,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상 살아가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분이 바로 김상묵이라는 어른이라 할 수 있다. 이분을 대하게 되면 몇 시간을 함께 앉아있어도 지칠 줄을 모르는 채 무슨 이야기든 말이 끊임이 없으며, 이야기를 시작하면 거기에 금방 몰입하여 이야기 속 인물들의 마음과 대화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절실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들을 매료시키곤 한다.

나는 이분만큼 보학과 보학담을 높은 수준에서 겸비한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보학담 이야기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한국 이야기 문화와 구연전통의 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이분이 보학담인간문화 재로 지정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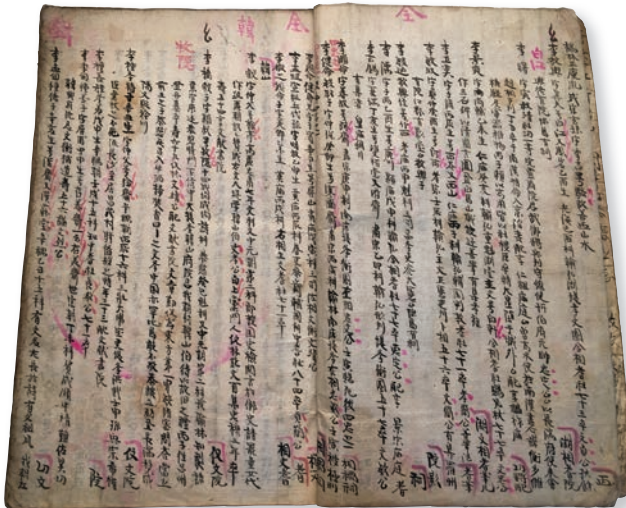
- 황인덕, 보학(譜學)담
이야기꾼의 사례 고찰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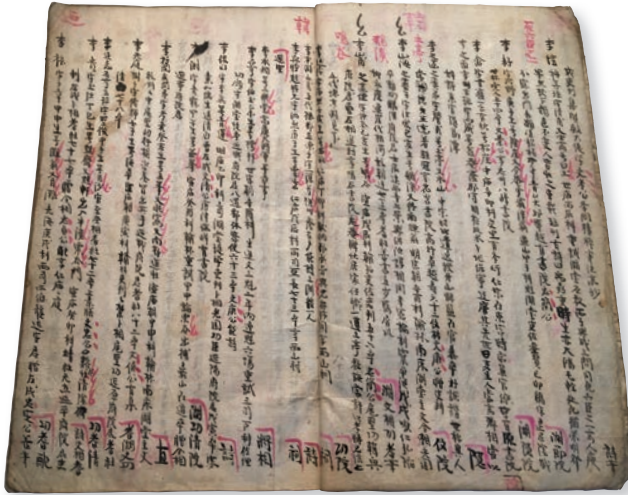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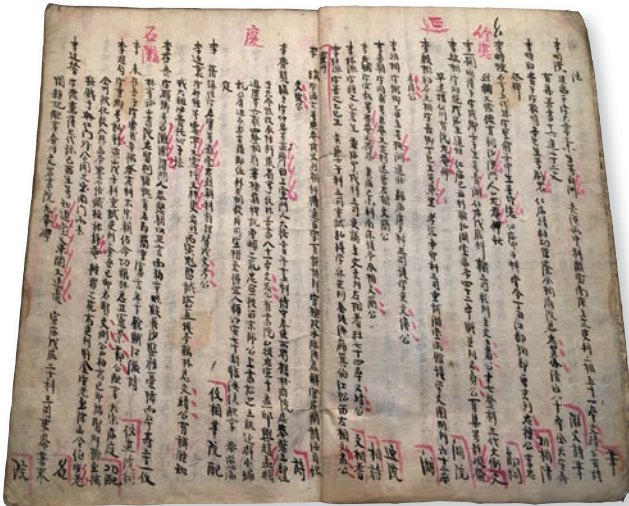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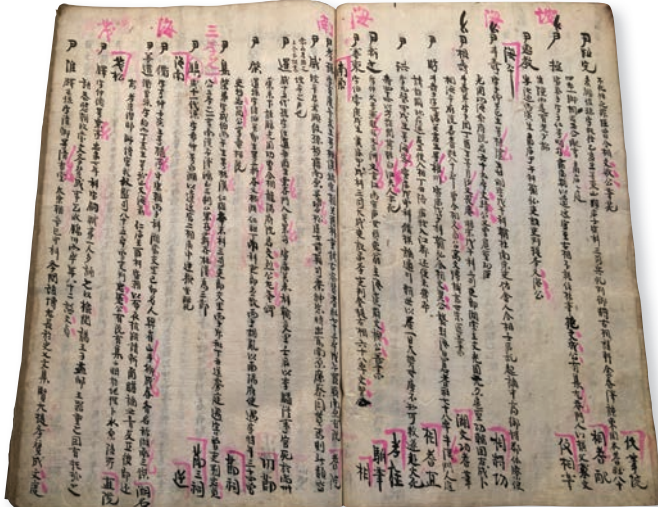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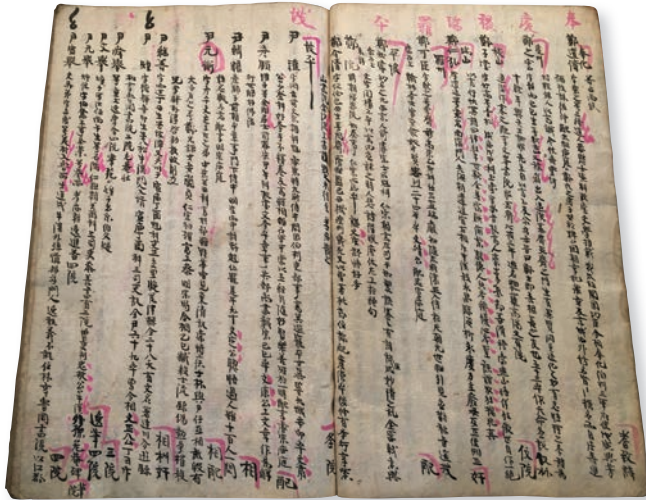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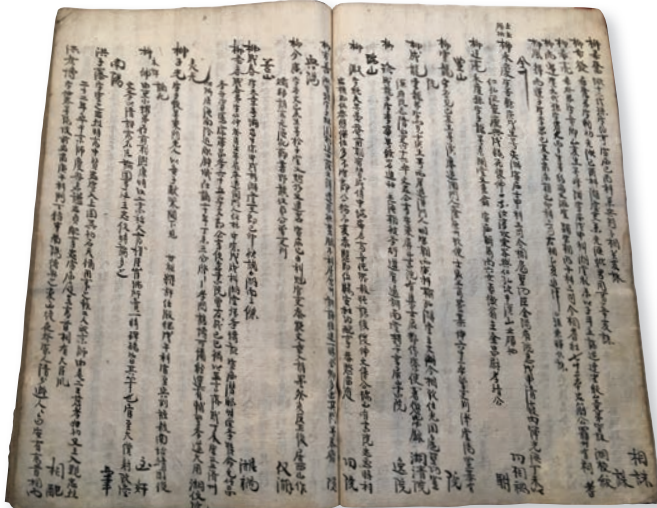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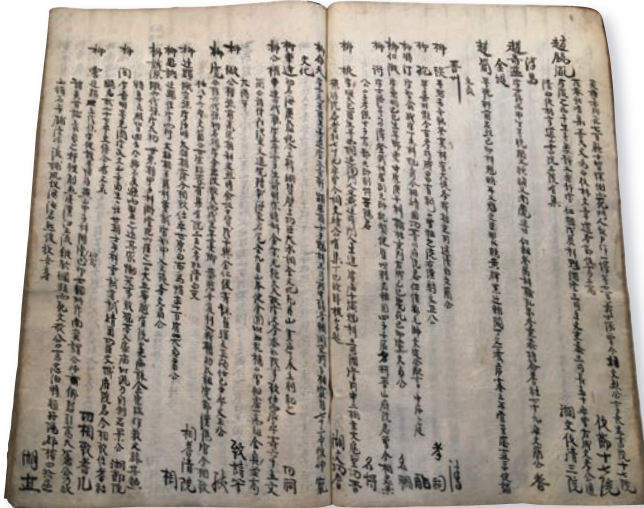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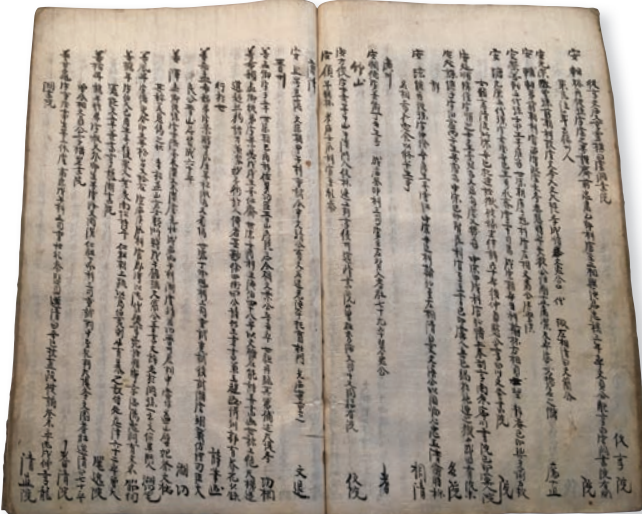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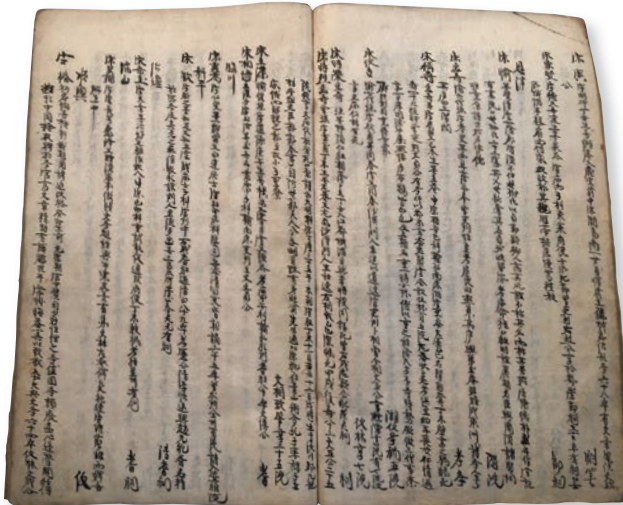


06









61



62



현대에
이어지는
보학
문화



26

만성보 萬姓譜

1890년대 이후 필사 / 19.7×30.3 / 김세신 기증



27

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統譜

1923 / 18×26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28

만성족보사전 萬姓族譜事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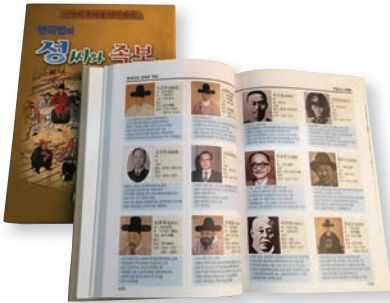
1966 / 12×17 / 류구상 기증



29

성씨자료집 上·下

1994 / 23.5×34.5 / 장삼섬(張三變) 기증



30

한국인의 성씨와 족보

2008 / 17×25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31

한국성씨총감 上·下

2005 / 21.4×30.4 / 정강철 기증



32

한국의 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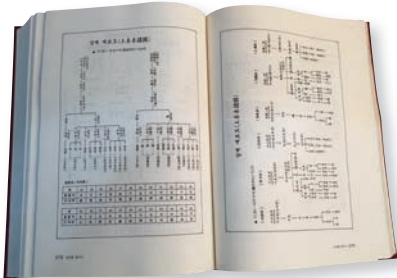
1981 / 19.2×26.3 / 김광배 기증



33

한국성씨보감 上·中·下

1992 / 19.4×26.2 / 김광배 기증



34

성씨를 찾아서

2004 / 21.5×30.5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35

한국인의 족보

1996 / 19.6×28 / 정도홍 기증



36

성씨대보총람 1~7권

1993 / 19.5×25.5 / 김광배 기증



37

한민족대정보 上·下

1999 / 23×34.5 /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황인덕

차례

1. 머리
2. 가문배경과 생애 체험상의 전통 지향적 기반
 - 2.1. 가문배경과 전통 지향적 의식의 형성
 - 2.2. 생애과정과 유교적 가치관의 지향
 - 2.3. 유소년기의 ‘글사랑방’ 체험
3. 이야기꾼으로서의 구연 능력과 보학담 구연의 습성화
4. 보학담의 제재적 성격과 구연 방식
 - 4.1. 보학담 제재의 구분과 유형
 - 4.2. 보학담 제재의 구연 양상
5. 김상묵과 그의 보학담의 의의
6. 맺음

1. 머리

사람의 이야기 '구연 욕구'가 지니는 항상성, 상시성, 무제한성 등을 생각할 때, 이야기판의 조건과 구연방식은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야기꾼의 존재 의미마저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이야기 구연의 결과인 설화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속에 활발한 채기(採記)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에 비하여 화자 또는 이야기꾼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적은 것을 구비설화 쪽에서 드러나는 한 불균형 현상으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조선조 이래의 풍부한 야담자료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근현대 설화자료 조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미약한 편이다. 수십년 이래, 크고 작은 여러 규모로 지역성을 표방하는 수많은 구비설화 자료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성을 주목하는 자료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화자 또는 이야기꾼이 지닌 지역성 및 문화·역사적 관련성이나 개성을 주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설화의 표본성을 중시하는 개괄적인 조사를 넘어 장소, 마을¹⁾, 직업, 계층, 성(性), 사상, 종교 등 다방면으로 설화 조사가 확장될 때 자료의 밀도가 높아지고 설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듯, '이야기꾼에 따른' 조사 또한 위와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쉽게 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다수의 '화자' 수준에서부터 예외적으로는 소수의 '이야기꾼' 수준에 이르기까지, 설화 작품에 필수로 따르게 되는 구연자의 존재와 역할과 특징을 좀 더 세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작품과 구연자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²⁾ 이 글은 대략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이전 시기 한국 사회에서 존재해온 이야기꾼의 여러 특징적인 유형들을 포착하여 정리하고 그 의의를 음미해 보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특징적인 하나의 사례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한국의 여러 화중(話衆)으로부터 설화를 듣고 채록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흥미로운 현상의 하나는 누가 '보학'에 능통하다, 보학에 밝다, 보학 선생이다, 보학을 잘 댄다는 등의 말을 자주 듣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가 하면 누가 '보학이야기'에 능하다, '보학이야기꾼'이다, '김(이, 박)보학'이라고 한다는 등의 말을 쓰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보학'과 '보학이야기'라는 말은 거의 구분 없이 함께

1)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치밀한 조사를 시도함으로써 이 방면에 대한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중요한 성과로 『술꿈마을의 구전 문화』- 구전이야기에 초점을 둔 민족지적 현지조사 연구(김영희·이미라·황은주, 이화, 2006)를 들 수 있다.

2)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기 구연자) 가운데 남다른 경력과 인지도와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이야기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 때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꾼은 개인적 예외성을 주로 주목한다면 화자는 집단적 일반성을 더 유의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구비문학 조사 경향이 쌓여나가는 추세에 따라 이야기꾼에 대한 관심이 '화자(군)'으로 확대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민속연구』26집이 참고되며, 이 가운데 특히 김영희의 논문 「남성 토박이 이야기꾼의 범주 구성과 이질화 양상 연구」가 주목된다. 이 외에 이야기꾼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김영희의 논저들에서 거듭 자세하게 정리되고 언급된바 있다. 때문에 번다함을 피하여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상론을 생략하기로 한다.

쓰이고 있다. 보학지식에 대한 기억과 보학이야기에 대한 구연을 함께 ‘보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학이 명사형과 동명사형을 함께 포용하고 있음은 두 가지가 모두 주로 ‘말’ 행위로 실현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말로 표현되므로 보학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이야기로 잘 구연하는 것이 굳이 분화되지 않은 채 쓰이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보학이라는 학문이 정식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전부터 아주 널리 쓰여 왔다.³⁾ 한국에서 보학이란 “우리나라 주요 성씨들과 그들 각 씨족내 주요 파계들의 내력이라든지 또는 그들 각 씨족내지 각 계파에서 배출된 주요 인물들의 가계적 배경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뜻한다.”⁴⁾ 고 한다. 그런데 이는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보학’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있다. 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족보에 대한 이러저러한 종합적 지식을 보학이라고 한 것은 족보가 중시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존중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조선 중기 이후 족보의 발달과 그에 따른 보학지식의 확산 및 보학이야기의 성행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 ‘보학’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족보지식과 족보이야기가 존중되어 나간 조선 중후기의 독자적인 사회적 배경에서 족보담론이 과대평가된 결과 ‘학(學)’이라는 다소 과잉된 용어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보학이야기-보학담-의 구연도 널리 성행되고 보학이야기꾼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보학 이야기꾼’, 즉 ‘보학 이야기(보학담)’에 능한 이야기꾼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 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한 사례분석으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 주는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고찰 대상 인물은 현재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묵(1924~)이다. 그를 고찰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보학담 이야기꾼으로서의 일반인의 인지도와 평판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과 주변 인물들로부터 보학에 아주 밝은 분, 그 방면에서 적어도 공주라는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시에 이야기 구연을 좋아하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는 학력이나 경력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반면⁵⁾ ‘보학에 밝다’, ‘보학으로는 그 이상 없다’는 하나의 특징으로 하여

3) 송준호, 『한국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44쪽.

4) 같은 책, 65쪽.

5) 그는 학력으로는 통감 2권을 읽다 만 정도이며, 경력으로는 향교 장의·충효교실과 노인대학 강사·안동권씨 제학공파의 이사 및 몇 곳의 향교와 서원의 임원을 지낸 정도이다.

주위로부터 널리 평가되고 인정을 받는 인물이다.⁶⁾ 이로써 볼 때 그는 이 방면에서 특별하게 주목될 만한 위치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분에 대하여 보학담 이야기꾼으로서의 특징을 크게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 그리고 구연 작품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외적인 측면은 주로 가정적 배경을 중시하여 살펴보고 내적인 측면은 유소년기의 영향을 주목하여 이해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구연 작품을 통하여 표현상의 특징을 주목하고, 이야기꾼으로서의 시대적 의미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2. 가문배경과 생애 체험상의 전통 지향적 기반

보학이 씨족의식의 전통성 위에서 배태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면, 넓게 볼 때 그것을 더욱 강화시킨 것은 조선조의 양반적 권위의식과 자긍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역사 문화적 배경과 전통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학담’이라는 특징적인 한국의 이야기 문화도 형성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김상목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보학담’ 이야기꾼으로서 접근하고자 할 때 우선 이런 점에 유의하여 그 생애 배경부터 주목하여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이 문제를 크게 가문 배경, 사회 체험, 유소년기의 체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적인 점들에 유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 가문배경과 전통 지향적 의식의 형성

6) 필자가 그를 이야기꾼의 한 사례로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이미 십수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여러 이야기꾼 사례를 두루 탐색하는 데에 주안을 두다 보니 집중적인 면접 관찰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근년에 공주 지역을 답사하면서 보학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그보다 나은 분이 없다는 것이 공주 지역 일대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의 공론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문득 여러해 전에 만났던 그가 고령이 되었겠다는 사실에 경각되어 서둘러 집중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근년 여러 번에 걸쳐 그에 대한 집중적인 방문 조사를 통하여 이야기 녹취와 면담 및 면접 관찰을 통하여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방문한 날짜는 부록자료 참고). 참고로, 그를 아는 몇몇 지인들의 그에 대한 언급을 소개하기로 한다.

장석길 : 보학 하면 께지. 옛날 보학하면 아주 켜다구 그. (공주시 유구면 동해리)

이희옥 : 그 정신력이 그렇게 좋으시구. (공주시 유구면 동해리)

노홍수 : (문답리에 사시는 분요. 예.) 응. 그분이 공주 시내 팔내에서는... 그 뭐라구 하나... (보학요?) 응? (보학요?) 보학. 보학을 쥔 알아. 많이 아는 분어. 나히구 동갑인데 시방 신관동 사는데 집은 몰라졌어. (조사자: 예 그분이 보학을 어떻게 잘 아시는 데요.) 옛날, 으런덜 내력을 그렇게 잘 알어요. 그러구 각승 있잖아요? 우리 승. (예.) 승에 대해서 기백하게 안다구. ... (중략)...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예. 중국서 오신 양반. 그 양반을 광주 능을 모셨어. 능이, 모이마냥 쓴 그, 있는디. 우리, 아는 사람도 몰르는디. 비에 내력을 좀 쓰잖어? (예.) 쓰는디. 광주를 갔더라. 일부러 가서 비문을 보고 와서 세계를 대는디, 그렇게 있어버리덜 많구 정신이 좋아. 보학에는 뭐 지금 살아있는 학자덜 중에서도 쥔 낫을 걸? (공주시 신봉면 조평리 발발)

김상목은 조선조의 대표적인 양반가문의 하나인 안동김씨 후예⁷⁾로, 그의 선대가 서산에 이주한 것은 조선 중엽이었고, 그의 조부때에 서산시 음암면 탐곡리로 이주했다.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20세기 초반 그의 조부는 서당 훈장으로 집안을 겨우 이끌어갔고,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는 시국 속에서 그의 아들 또한 별다른 방도가 없이 인근 마을을 전전하며 부친처럼 마을 훈장이나 독선생을 하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왔다. 그의 조부와 부친은 가난한 훈장으로 살면서도 문한가의 맥을 잃지 않음으로써 양반가문의 긍지와 전통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⁸⁾

그러는 가운데 그의 조부는 1919년 전국으로 번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왜경에 잡혀가 모진 매를 맞고 겨우 혼방되어 목숨을 부지하는 모진 고초를 겪었다.⁹⁾ 이러한 왜놈의 탄압으로 병을 얻은 부친이 고생 끝에 별세하고 난 몇 년 뒤, 김상목의 부친은 날로 글러가는 시국을 개탄하다가 결국 고향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반일 적대감을 자진멸적(滅籍)으로 표명한 뒤, 그는 조상의 신주를 땅에 묻고 세간도 거의 버려둔 채 가족만을 거느리고 공주의 무성산 '구학동'으로 이주한다.¹⁰⁾ 멀고 험한 무성산으로 새 거주처를 삼은 것은 이곳 일대가 십승지(十勝之地)라는 비결(秘訣)에 따른 것이었다. 피난하듯 이곳에 온 것이므로 그는 무성산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지를 택했고, 당시 그곳에 살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와 비슷하게 비결을 믿고 온 사람들로서 모두가 정감록(鄭鑑錄)류를 신봉하고 있었다.¹¹⁾ 김상목의 나이 12살이 되던 해였다. 그의 부친은 그의 조부가 그랬듯 가난한 삶이었음에도 산업이나 가사에는 등한한 채 거의 훈학에만 종사하며 산 분이였다. 이 때문에 머슴도 없고 살림 기반도 다 잃다시피 한 처지에서, 김상목은 밖으로만 나타나는 부친으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거주 조건이 열악한 점 때문에도 인근 서당에 취학하기도 어려웠다.¹²⁾ 더구나 맏아들로서 그는 거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여 농사일에 서툰 모친을 도와 어려서부터 힘든 가사에 열중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겨우 『사략』을 읽다 만 상태에서 나이 17살에 장가를 들어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데 전념해야 했다. 그의 모친은 이름 있는 양반 가문 박진사댁 딸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양반가인 채씨

7) 구안동김씨이고 재학공파이다.

8) 삼대를 벼슬을 못하면 평민이 되지만 문한가는 그렇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가문은 삼대에 걸쳐 훈장을 했고 그로써 문헌전통을 이어온 것이기에 양반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상목은 학식은 별로 없어도 양반가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게 지니고 있다. 채씨 집안에서 그의 집과 혼인하고자 할 때 부자가 같이 혼학을 한다고 하니 더 볼 것이 무엇 있겠느냐며 안심하고 혼인을 추진했다고 한다.

9) 서산에서 흥성경찰서로 끌려가 매를 맞았고, 기진한 부친을 아들이 업고서 귀가하느라 또한 애틀었다고 한다.

10) 공주시 사곡면 회화리 구학동

11) 그가 이주할 때 다른 3집이 함께 왔고, 다음 해에 2집이 또 왔다고 한다. 그때 구학동에는 16집이 살았는데 12집이 '정감록' 비결을 믿고 온 것이라고 한다.

12) 그때 가까운 서당은 무성산 서쪽에는 사곡면 월가리, 동쪽에는 우성면 한천리에 있었다고 한다.

가문¹³⁾의 딸로서, 처가 쪽에서 멀리 무성산 산골로 찾아와 청혼하여 혼인이 이루어졌다.¹⁴⁾ 이는 그의 집안이 평소 서산 향촌에서 문한(文翰)을 잃지 않은 양반가로 존중된 것이 큰 요인이었다. 그는 별다른 불만 없이 부모의 뜻을 받들면서 아우와 함께 가세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심산 벽지에서 극빈하게 지내다가 몇 년 뒤에 그의 부친이 훈학 초청을 받게 되어 천안 광덕(廣德)으로 가게 되었고, 이 기회에 그의 가족도 무성산록을 떠나 광덕에서 가까운 공주 태화산 기슭 ‘갈재’로 거주처를 옮겼다. 갈재도 구학동과 비슷한 정도의 벽지였고 이러한 산골로 다시 옮긴 것은 평소 일제의 학정에 대한 저항의지를 지니고 살아왔던 것처럼 저들의 징집과 모집을 피하고, 아예 국군징집까지 회피하여 난세에 보신을 잘 해야겠다는 뜻에서였다.¹⁵⁾ 그러고서 한 해 뒤에 훈학을 마친 부친도 갈재로 귀환함에 따라 그는 산전을 일구는 것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가운데, 왜놈들의 징집과 그 후의 국군 징집까지 피하며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¹⁶⁾ 그러다가 육이오라는 또 다른 난세를 맞았고, 이때 오지 주민에 대한 소개(疏開) 명령에 따라 결국 그는 아래 마을 문금리 당골로 다시 거주를 옮겨야 했다. 이곳에 안착한 그는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3남, 3녀)를 기르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이루게 된다.¹⁷⁾ 그의 부친은 주로 초빙 훈장 혹은 마을 훈장으로 살면서 전통 시대의 선비다운 풍모와 정신을 잃지 않고자 노력한 분이였다. 훈학을 직업처럼 여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으며, 일제 말기로 올수록 훈장생활 여건은 열악해져갔고, 육이오 전쟁 이후부터는 서당이 더욱 위축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단엄한 선비였던 데에다 평소 여러 곳에서 훈학을 하면서 사귀고 가르친 제자가 많았고, 그를 존경하는 분도 적지 않아 벽지에서 살 때에도 그를 방문하는 선비들이 많았다. 지인과 제자들의 그러한 존경심은 부친의 사후 대상(大祥) 때 먼 곳의 조문객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김상목은 빈한한 가운데에서도 반가의 문한 전통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부친을 깊이 존경하며 따랐다고 한다. 또한 그에 따라 부친이 갑자기 별세하고, 그에 이어 지인들의 발길이 점점 멀어짐에 따른 상실감을 매우 크게 느껴야 했으며, 부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인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그의 평소 생활과 의식의 전통 지향성이 강했던 일면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13) 채씨 가문도 그곳 일대에서는 양반으로 인정을 받은 듯하다. 채씨들은 흔히 채정승을 현조로 들곤 하며, 그의 부인이 채정승의 9세손임을 서슴없이 했다.

14) 그의 처가는 서산군 운산면 수평리로, 그곳에서 인심 좋은 양반가문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장인도 훈장을 했다고 한다.

15) 이곳 갈재 부근 태화산 일대는 외진 산지이자 천안 아산 공주 접경지여서 병역 기피자가 숨어 살기에 적지었다고 한다.

16) 그 당시 이곳 태화산 일대에서 병역 기피자로 숨어 산 사람이 모두 네 명이었다고 한다.

17) 이곳에 정착하여 소를 기르며 5마지기의 눈을 마련해 경작했고, 전에 살던 갈재의 산전도 계속 경작하여 보리를 열 가마, 콩을 몇 가마나 수확하는 등 매우 근면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처럼 김상목은 가문과 성장 배경에서 볼 때 이미 몰락 시대에 처하기는 했지만 양반가문으로서의 전통의식과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왔다. 특히 조부의 항일운동으로 인한 배일의식이 그의 부친의 삶에는 물론, 결국 손자인 그 자신의 생애에까지 미침으로써 그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원만한 타협과 적응을 더욱 멀리하게 했다. ‘현대’라는 시대에 처했으면서도 남다른 가문적 경험은 부모 쪽의 가치관을 따르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 그의 생애가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온 시대는 삼대가 각기 달랐지만 손자가 지녀온 가치관은 조부나 부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이처럼 현실을 피하면서 다소 무딘 감각으로 살아온 것이 그로 하여금 보화에 밝고 보화 이야기꾼으로서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2. 생애과정과 유교적 가치관의 지향

김상목의 정신적 기저에 영향을 준 가문배경을 살핀 것에 이어, 이제 이를 기반으로 실현되어 나간 그의 개인적 삶과 체험을 주목함으로써 그 점의 이해에 좀 더 진입해 보기로 한다. 위에서 보았듯 그는 부친과는 세대와 시대가 달랐음에도 가정배경상의 특수성을 공유함으로써 기본적인 가치관에서는 상호 연속성과 동질성을 강하게 유지해 왔다. 그러한 특수성이 사회와의 부조화를 부추긴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그만의 포부와 가능성은 상당 부분 소거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로 인해 그의 개성이 다 지워진 것은 아니며, 그가 받은 가문적 전통성은 그의 시대에 적합화되어 그 나름의 개성으로 채워진 부분도 있다. 그것은 대략 다음 몇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종사(宗事) 활동이다. 그가 종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그 자신 제학공파(提學公派)¹⁸⁾ 아래 한 계파의 장손임으로 하여 필연적 의무로 부여된 일이었다. 이러한 위치로 하여 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서부터 이에 대한 자각을 지녀 왔고, 안동권씨 대종회가 창립됨과 동시에 이사(理事)를 맡으면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시골에 살면서도 이사로서의 직임에 충실하고자 서울 사무소에 자주 출입하였으며 족보 발행 과정에도 능동적으로 동참하였다. 안동김씨 대동보 발행을 추진할 때에는 15명의 소파(小派) 실무자 가운데 제학공파의 책임자로서 수단(收單)을 작성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뒤에 제학공파보를 따로 만들 때(1989)에는 일을 추진하는 데 따른 여러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시종 일을 주도했다고 한다.

18) (구)안동김씨의 종시조는 김방경(金方慶:1212~1300)이며 김방경의 현손대에 18파로 갈렸는데 그 중심이 되는 한 파가 김익달(1380년 급제)을 시조로 삼는 제학공파라고 한다.

두번째는 유림활동이다. 그의 부친도 유림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본디 지역연교권이 공주가 아닌 유구와 그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주 유림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¹⁹⁾ 그러나 어려서부터 공주권을 생활 거점으로 살아온 김상묵은 부친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공주권의 선비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유림을 통한 현실참여도 이루어졌다. 그는 주도적으로 유림 인물들과 교류를 꾀한 것은 아니었으며, 가까운 유구에서 유림 쪽 인물로서 명망이 있던 ‘오진섭’과 인사를 하고 지냄으로써 그 방면의 활동과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씨는 유구유도회 회장직을 삼십여년 동안이나 유지할 정도로 지역에서 인망이 있었던 분으로 한문 수준도 넉넉한 편이고 언변도 좋았다고 한다. 그는 가까운 추계리에 거주하는 오회장을 때때로 방문하여 친분을 나누고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이로써 자연히 그는 유도회에도 가입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선비들과의 교류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교적 가치관이 누구보다 강한 그는 곧 오회장의 신임 속에 유도회 활동에 적극성을 보였고, 이후 공주 향교 장의(掌儀)를 지내기도 했다. 평소 유교적 가치관의 유지와 확산에 의욕을 가져온 그로서 유도회 활동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과 보람을 느끼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유도회 임원의 직책을 맡은 것은 그에게 공주를 넘어 전국 여러 곳의 서원과 향교에 대한 제향에 널리 참여하고²⁰⁾ 유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주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보학답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데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²¹⁾

그의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활동의 세번째 일은 지역사회에서의 충효교실 운영이다. 그의 60세 무렵에 시작된 충효교실은 처음 평소 친하게 지내온 ‘김교창’과 함께 발의하여 군수의 초도 순시 때 민원으로 제기한 것이 군수의 적극적인 찬동과 지원을 얻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충효교실의 실질적인 출범은 위 두 사람 외에 여기에 뜻을 함께 하는 친구 3명을 더 동참시킴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졌다. 충효교실은 처음 유구읍 덕곡초등학교에 개설되어 방학을 이용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가 이루어졌고, 뒤에 호응도가 높아지자 인근 다른 학교로까지 파급되었다. 강의는 세 사람이 분담하여 각각 좋아하는 분야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다가 뒤에 유구초등학교에서도 충효교실을 운영함에 따라 그는 그쪽으로 가서 강의를 했고, 또 그 뒤에는 이인초등학교에도 충효교실이 개설되자 그는 다시 그곳으로 옮겨가 강의를 했다. 이처럼 그는 남보다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 일에 늘 열성적으로 임했다. 김상묵은 『명심보감』을 주된 교재로 하되 역사 이야기를 가미하여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 『명심보감』을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그가 어려서 가장 자신있게 배웠던 내용이면서, 아동들의

19) 유구는 공주의 서북쪽 변경지로 공주권이면서도 예산이나 천안 방면과 가까운 곳이다.

20) 그는 90이 넘는 을 해(2015)까지도 가까운 공주권의 유림 관련 모임에는 참여하고 있다.

21) 그의 중요한 인간교류가 이들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듯, 동시에 이들 모임 자리는 그의 보학답이 수용되는 주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인성 도야에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가 가르친 내용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위 세번째와 비슷한 예로서 네번째 일은 대한노인대학 유구지회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여 '노노 교육' 강사로 일한 경험이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지만 그는 과거 충효교실에서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노노교육 강사로 위촉되어 이전의 강사 동료들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몇 년간 강의를 계속했다. 이때의 강의 교재도 『명심보감』이었고 강의 활동은 2011년까지 지속되었으나 내환을 겪고 건강이 약해져 그 후부터 중단했다.

이상에서 보듯 김상목은 몇 가지 면에서 부친과는 다른 그만의 삶을 경험하고 영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부친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에게 주어진 시공간에 자신을 적응하고 실현해 나간 과정인 셈이다. 그러나 그가 겪고 경험한 삶의 방식은 달랐다 해도 그 정신이나 가치관의 지향점은 부친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한 가문의식의 영향과 계승, 유교 이념의 실천을 위한 노력, 윤리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등을 통하여 그가 실현한 삶은 또 다른 방식으로 유교적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곧 그의 부친과 조부가 지향한 유교적 삶과 별 차이가 없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2.3. 유소년기의 '글사랑방' 체험

김상목을 보학이야기꾼으로 성립시킨 남다른 동기로서 그의 유소년기 체험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름 아닌 그의 서당 훈장으로서의 가정 배경과 그에 따른 유다른 글사랑방 체험이다. 그의 조부와 부는 대를 이은 훈장으로, 조부가 집에서 훈학을 할 때에 부친은 외지에서 했고, 조부의 사후에도 부친은 서당의 명운이 다해가던 60년대까지 마을에서 훈학을 계속했다.²²⁾ 이러한 가문에서 나고 자란 김상목은 전통시대 서당문화에 대하여 대를 이은 익숙한 관찰자이자 충실한 '직접체험'자였다.

더욱 그에게 이러한 체험이 중요한 것은 그가 서당방에서 조부와 기거를 함께 하다가 하면서 유소년기를 보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첫딸을 낳은 뒤 팔년 만에 그를 낳았고, 이 때문에 그는 조부의 각별한 귀움을 받으며 성장했다. 조부는 어린 손자와 한 방에서 거의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다시피 했다. 특히 삼일 만세 운동의 주모자로서 왜경에게 당한 후유증으로 그의 조부는 만년을 병객으로 지내면서 겨우 훈학을 하는 처지였는데, 이로써 조부의 명성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22) 60년대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누구나 거의 다 다녔고, 중학교 이상은 시험을 거쳐 제한적으로만 다니던 때였다. 이때 중학교를 못 다닌 일부 학생들이 대개 서당을 다녔다.

지역 선비들의 조부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높아져 여러 해가 지나도록 조부의 글사랑방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지인과 선비들은 멀리서까지 조부를 내방하여 인사하고 환담을 나누는가 하면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화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떠나곤 했다. 이때 방문객이 오면 조부는 손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키며 방문객에게 손자 자랑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의 최초 공부도 조부의 글사랑방에서 다른 학동들과 함께 배운 천자문 익히기였다.²³⁾

이들 내방객들 가운데에는 하루 이틀 묵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개 야심하도록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조부 곁을 늘 맴돌며 지냈던 어린 김상목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랑방 과객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이야기 듣기에 익숙해지고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들 방문객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자주 내방하고 이야기를 잘 하는 존재는 필상(筆商)이었다. 이들 필상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고 무시로 왔다. 이들은 학동들이 물건을 용이하게 사고 거래처를 많이 확보할 목적에서 외상 거래를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이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서당을 내방하곤 했다.

이들 필상들은 서당 학동들의 환심을 끌어야 했으므로 일단 서당을 방문하면 학동들에게 친화력 있게 말을 걸고 무슨 이야기든 들려주려 했으며, 이런 가운데 흔히 보학담이 나오곤 했다. 대개 필상들은 여러 곳을 떠돌아 순회하며 다니는 처지이므로 시간에 쫓기는 처지가 아니기에 날이 저무는 마을에서 자고 가게 마련이며, 수급할 여유를 갖기 위해서도 묵어갈 필요가 있었다. 이로서 자연히, 학동들을 상대하는 곳이자 말벗이 있는 마을 서당은 이들 필상이 숙소로 삼기에 좋은 장소가 되었다. 서당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이들은 훈장인 주인에게 예의바른 행동거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호감을 줄 수 있는 소식과 지식 및 구연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밤까지 주인과 마을꾼을 상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동원하여 서당방을 이야기판으로 전환하고 밤늦도록 이야기판을 주도하곤 했다. 때로는 이들 이야기를 들으러 주민들이 일부러 밤마을을 오기도 했다. 김상목은 이들 필상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입담 좋게 구연했던 사실이 기억에 깊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글사랑방 중심의 이야기 듣기 체험은 조부가 별세한 10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조부의 사후에도 다양한 내방객으로 인한 이야기 듣기 경험은 약하게나마 조부를 이은 부친의 만년기까지 지속되었다.

이처럼 김상목은 유소년기인 열 살 이전 무렵에 조부의 사랑방에서 전통시대 글사랑방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부의 개인적 처지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하여

23) 그러나 그의 조부가 별세한 것은 그가 열 살 직전 무렵이어서 조부 밑에서의 공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접하면서 그들의 예법이나 담화방식과 이야기 세계까지 두루 접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랐다. 나아가, 그러한 경험은 유소년기에만 그치지 않고 부친을 모시고 살았던 청장년기 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에 글사랑방 문화를 깊고도 익숙하게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는 다소 유다른 경험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곳에서 다양한 방문객들과 그들의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 구연방식과 그 내용을 수시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전통 양반 글사랑방의 이야기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답습하게 해주었으리란 점에서 이야기꾼으로서의 김상묵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이야기꾼으로서의 구연 능력과 보학담 구연의 습성화

앞 장에서 이야기꾼으로서의 외면적인 영향 요인을 살핀 데 이어 여기에서는 내부적인 측면에 관심을 돌려 그의 생래적인 기호와 함께 보학담 구연의 습성화된 면을 살피기로 한다. 이야기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특징으로 들어야 할 것은 그의 보학담 구연행위가 일상 속에서 거의 습성화, 관행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 여기에는 유소년기부터 글사랑방에서 일상적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 구연문화가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그런 만큼 그로서는 가장 어려서부터 계발된 것이 바로 이야기 듣기의 감성이자 이야기 구연의 취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누구를 만나 인사를 통하고 나면 의례히 친밀감을 보이며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생면부지의 옆 사람 과도 대화하기를 꺼리지 않을 정도로 그가 남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태도는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 구연 욕구와 행위가 그가 체험한 하나의 특이한 문화이며 어려서부터 계발되고 습성으로 내재화된 것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고 구연을 즐기는 것만큼 상대방과 주고받기식보다 거의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걸고 이야기를 구연한다. 그것은 그의 말 걸기가 서로 가깝게 인사나 나누자는 데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보학담 구연의 실현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대방과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의례 상대의 본관과 파계 확인으로 이어지고, 그와 관련된 긴 역사인물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인물에 대한 포폄도 하고 개인의 주장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 그의 이야기 구연은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이어진다. 그가 사는 인근의 친구들이나 그를 접해본 이들은 그의 이러한 이야기 구연 습성과 기호를 잘 알고들 있다. 그의 부인은

평소 그에 대하여 '턱이 가벼워 말을 많이 한다'거나, '생각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을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고 지적하거나, '남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왜 그렇게 앉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라는 말로 그를 핀잔하기도 한다. 이는 곧 말(이야기)을 많이 하려는 그의 욕구가 남다름을 달리 설명하는 말들이다. 또한 그를 잘 알거나 다소 지식이 있는 이들은 그가 하는 이야기의 중심이 보학담에 있음을 잘 알지만, 그를 피상적으로만 아는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며, 종일 이야기를 하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말에는 대략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즐겨 하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며, 지식이나 사실을 확실성 있게 말하기보다 이야기식으로 말한다는 등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는 그가 천성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즉 이야기를 좋아하는 취향-이야기의 기호도-이 높다는 것으로 귀착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유달리 좋아하는 그의 이러한 기호는 곧 유소년기부터 잦은 이야기 구연 환경에 흠뻑 젖어 여러 측면에서 저절로 교육적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의 두번째 특징은 좋은 기억력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충기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이른 시기에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거의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한다. 또한 청장년 시절에도 유식한 분들의 이야기나,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는 주의 깊게 듣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대개 잘 기억했다고 한다. 이러한 능력은 거의 노년기까지도 쇠퇴하지 않았으며 이런 점을 그의 지기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본디 무식한 편이며 자신이 기억하는 이야기는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거의가 어려서 어른들한테 들은 것이라는 사실을 자주 한다. 그리고 더러는 청장년 이후 오다가다 들은 것일 뿐이라는 말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는 지나친 과장이 아닌 듯하다. 실제로 그의 한문 공부는 청년기 때 『통감』둘째 권을 읽다 만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만년에 독학으로 미진한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야담책을 즐겨 읽은 것도 아니며 현대인으로서 필요한 교양서를 자주 읽은 것도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의 유소년기에 이야기로 들은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후 새로운 독서 체험도 별로 없는 채, 그의 이야기는 거의 이 무렵의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야기를 책으로 읽은 경험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오직 어려서 들은 것을 활용하며, 장년기 이후에 추가한 자료도 '이야기로 들어서 얻은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유도회원으로서는 타 지역의 서원이나 향교에 갈 기회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가문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여 이야기를 새롭게 보완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어려서 들은 것 외에, 유림으로서의 교류를 통하여 이야기를 보완하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 것일 뿐 어느 성씨에 대한 보학담 제재를 글로 읽어 확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의 이야기 기호와 습성의 특이성을 말해주는 또 다른 예로서, 보학담 듣기가 어려서부터 습성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는 아무 이야기나 무조건

듣고 구연하는 박학다식형, 또는 종합형 이야기꾼은 아니며 그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 위에서, 유교 이념과 관련이 있거나 보학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주로 듣고 기억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야기에 대한 그의 이러한 선별적 태도 역시 그의 평소 이야기 듣기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요인은 목소리상의 특징으로, 크고 힘있는 목소리를 가진 점이 그것이다. 대개 큰 목소리는 이야기 청중으로 하여금 남성답다는 인상과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또한 그러한 목소리는 청중의 관심을 쉽게 끌어들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큰 편이었다고 하며, 극노년기인 현재도 음성의 그러한 특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큰 목소리가 많은 청중을 쉽게 흡인하는 요인이 된다면, 거기에 더하여 적당한 톤과 넉넉한 음량에 약간 울리는 듯한 고유한 음색은 이야기 구연의 맛을 모미있게 표현하는 데에 적절한 기여를 하고 있다.

네번째는 목소리의 높낮이, 완급, 강약을 구사하여 구연의 실감과 변화의 묘미를 잘 전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은 이야기 구연상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는데, 그는 이 방면에서도 세련되어 있어 개성적인 구연 효과를 잘 구현하고 있다. 다섯번째는 묘사의 구체성과 사실성이다. 그는 인물의 성격화, 배경 묘사, 사건 서술 등 설화의 세부 묘사나 서술이 필요한 대목에서 자주 사실성과 구체성을 잘 실현해 보이며, 이점이 표현의 생동감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섯번째는 설화의 내용에 감정이입을 쉽게 한다는 점이다. 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며, 때문에 음성의 고저나 완급을 잘 안배할 뿐만 아니라 감탄사를 자주 구사함으로써 필요한 대목에서 감정표현을 자주, 그리고 적절하게 실현한다. 그리고 때론 눈물을 보일 정도로 깊은 감정 이입을 하기도 한다. 일곱번째는 더러 한시 구절이나 한문투 숙어를 삽입하고 그 부분을 리듬을 가미해 구연함으로써 이야기에 고풍스런 분위기를 더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여덟번째는 전체적으로 더듬지 않고 막힘이 없이 유창하게 구연을 하는 점이다. 이는 그의 이야기 구연이 이야기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김상목은 기본적으로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점으로부터 세부적으로는 목소리상의 여러 기교를 잘 구사하고 감정이입을 통하여 이야기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여러 면에서 능숙하고 개성적인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그의 보학담 구연의 습성이다.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의 보학담 구연이 일시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나든 몸에 밴 보학담을 자신만의 구연습관으로 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보학담을 필요할 때만 하거나, 요청이나 질문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예사 보학 이야기꾼이라면, 그는 그러한 태도가 깊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점이 유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보학담 구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학교 교실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는 주차장일 수도 있다. 주차장에서 낯모르는 점잖은 노인에게 말을 걸고 보학담을 꺼내는 장면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의 보학담 구연 상대는 서원이나 향교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달리는 버스의 승객일 수도 있으며, 식당의 옆자리 손님일 수도 있다.²⁴⁾ 상대가 보학담을 좋아하는 처지가 아닐 경우라면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에서도 그는 이처럼 어디에서나 보학담을 통한 소통욕구와 표현욕구를 습관적으로 발휘하곤 한다. 그만큼 보학담 구연은 그의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자 일상적 자기다움의 절실한 실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들 몇 가지 장면을 보자.

장면 1. 어느 날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옆자리에 동석한 승객이 자못 의젓해 보였고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남자였다. 그에게 자기부터 소개하고 어디까지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 성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진보이씨라고 했다. 훌륭한 가문이라고 칭찬하면서 진보이씨 가문의 명인 이야기를 한참 했다. 그러다가 다시 진보이씨 중에서도 무슨 파냐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런 것 안 따져요.” 이로써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속으로 ‘네가 걸은 멀쩡하지만 속은 상놈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장면 2. 유구의 고향 마을 쪽으로 가다가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다. 마침 중학생들이 많이 타 차가 만원 이어서 앉을 생각을 못하고 힘겹게 서 있어야 했다. 한동안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이 나타나지 않다가 드디어 한 학생이 일어서며 공손히 자리를 양보했다. 괜찮다고 사양하다가 버스 기사가 거듭 앉으시라고 권하여 마지못해 앉았다. 대견하고 고마워 학생에게 말을 걸어 성씨를 물었다. 학생이 대답을 해오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예의도 바르다고 칭찬하며 학생의 성씨 내력과 인물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학생과 옆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었으나 운전기사가 듣고서 요즘은 노인께서 어찌 그런 일을 그리 잘 아시느냐고 감탄하며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왔다. 간단히 충효교실 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이즈음 보기 드문 훌륭한 분이시라며 거듭 존경을 표했다.

장면 3.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충현서원의 제례 행사에 초대받아 갔는데 장의를 맡아보는 분과 인사를 나누고 보니 성이 국씨였다. 제례 준비가 진행되는 사이에 그에게 국씨 보학담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자신의 성이 희성인데도 그 내력을 자세히 알고 있음을 고마워하면서, 이전에 누구로부터도 전혀 못 들은 이야기를 비로소 듣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고마워했다. 이후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김삼복씨가 보학에 밝다는 사실을 널리 말하고 다녔다.

24) 자료의 실제 예는 부록을 참조할 것.

실제 이러한 사례들은 다소 특수한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그는 일상 누구를 만나도 이러한 태도로 대하고 보학답으로 대화를 한다. 필자가 그를 방문하면서 대학생을 동반하고 간 일이 많았는데 예외 없이 그는 필자는 물론 내방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보면 그는 평소 보학적 관행에 젖어 있고 그것이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인물임을 잘 알 수 있다. 어려서부터 보학적 관습에 익숙한 생활배경과 가치관 또는 그에 민감한 감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그런 만큼 이는 예사 인물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그만의 가장 두드러진 개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보학답의 제재적 성격과 구연 방식

그렇다면 이제 좀더 나아가, 김상목이 실제로 보학답을 구연하는 방식을 주목하여 보학답 이야기꾼으로서의 개성적인 능력과 독자성을 살펴볼 차례이다. 김상목이 여러 보학 지식을 동원하여 이야기로 구연하는 것은 그 방식과 길이 면에서 일률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띤다. 그 전체의 진행과정 즉 구연 ‘행위’를 ‘담화’라고 한다면 그 과정의 ‘결과’가 곧 ‘보학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과 과정의 특징은 곧 그의 구연과 작품을 통한 보학답의 이해에 긴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보학답을 구성하는 내용상의 특징과 그것이 전개되는 구연방식이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1. 보학답 제재의 구분과 유형

그가 보학답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 방식으로 구연할 때 이용하는 모든 자료를 ‘이야기 제재’라 한다면, 보학답 방식으로 응용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학답 제재’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공자 이야기, 서화담의 이기론, 조선 유교의 도통 이야기, 고려 건국 이야기, 대원군 이야기, 잘나란 개인 경험 일화 등이 ‘이야기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보학답 담화의 판이 끝난 여분의 시간이나 보학답 구연판이 아닌 구연 방식으로 구연된다.²⁵⁾ 그러므로 이들 이야기는 그의 보학답에서 본질적인 의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5) 예를 들면 그는 새로 만난 사람과 대면하여 처음에는 상대를 고려한 보학답으로 시작하다가, 관련된 제재를 다 소진하면 보학답 범의 밖의 이야기를 꺼내거나, 만난 사람을 거듭 만날 때는 똑같은 보학답을 반복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보학답 범의 밖의 제재를 가져 오기도 한다.

그는 대면한 상대와 인사를 나누면 대개 곧바로 성씨를 묻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가 입에 올리는 구연 항목들이 보학담 제재의 실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보학담 구연은 이처럼 실제적인 대면관계 속에서 발단되며 개개인과의 대화관계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의 보학담 구연은 보학담 관련 책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억의 한계를 책으로써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연판에서 보학담으로 상대할 ‘청중’이 고갈되었을 때 자신의 보학담 구연을 확대하고 지속하려는 욕구에서이다.²⁶⁾ 그러므로 그가 책을 참고하는 것은 청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보학담 구연의 변형된 방식일 뿐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보조적 수단에 그치는 것이다.

이때 그가 담화 속에 수용하는 제재, 혹은 구연 소재는 크게 단순한 ‘사실성의 제재’와 ‘설화성의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실성의 제재 : 특정 씨족이 잘된 정도 평가, 씨족의 시조와 유래, 파계와 인물, 명조(정승), 현조(관직과 명관의 수), 인물 포퓰(충신, 직신, 역신) 등
- (2) 설화성의 제재 : 시조 유래담, 인물 일화, 인물 역사담, 인물 야담

(1)에서 구성 제재의 나열 순서는 어느 항목이 생략될 수도 있으며, 전후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성씨가 번족했다는 사실, 씨족의 시조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 어느 파가 어디에서 갈렸고 그 인물이 누구라는 사실, 정승을 배출했는지 여부와 인명 수 및 이름이 누구라는 사실, 현조와 명인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언급하는 순서로 제재가 전개된다. 특히 이 가운데 그는 사육신과 생육신, 또는 박태보 같은 직신을 포장(褒獎)하고 그 반대 인물들을 폄하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의 보학담이 거의 일률적으로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관점에 서있지만 ‘계유정란’ 관련 인물에 대해서 그는 강한 부정적 평가의 시선을 보여주곤 한다.

(2)보다 (1)이 물론 선행되지만 (1)의 어느 한두 항목만 언급하고 (2)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조 유래담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 설화로 진전된 이야기를 말하며 흔히 신화나 전설성을 띤다. 인물 일화는 사건 중심의 간단한 인물담이며, 인물 역사담은 인물이 중심된 역사 이야기로 인물담과 역사담의 성격이 교차하는 이야기이다.²⁷⁾ 인물 야담은 야담성의 인물담으로서 일화성의 인물담이 흥미

26) <東英譜彙>란 책이 그것인데, 조선조의 씨족별 인물보의 성격을 띤 책이다. 이 책은 그의 부친이 누군가에게서 빌어다가 베낀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의 한 이본이 대전 뿌리공원 박물관에도 있음을 필자는 확인한바 있는데, 본디 이씨가에서 소장하던 것이라 한다.

27) 이는 1950-60년대에 자주 보아왔던 인물 중심 대중 역사서의 서술방식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사적 특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중심으로 길고 굴곡지게 전개된 경우이다. (1)이 사실 중심 제재로서 사실을 확인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이 중심이라면 (2)는 여기에 흥미를 추가하는 기능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학담에서 형식면에서는 (1)이 중요하다면 내용면에서는 (2)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2. 보학담 제재의 구연 양상

보학담의 제재와 그 구성 방식을 위에서 정리했는데, 바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구연해낸 결과가 그의 보학담이 되는 셈이다. 이제 이것을 구연할 때에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제재 선택에서의 자율성이다. 위에서 정리한 제재의 구성방식은 보학담 구연에서 나타나는 제재 전체를 종합한 것일 뿐이며, 개별 사례에 따른 제재의 선택과 전개방식은 아주 자유롭게 운용된다. 예를 보기로 한다. 발표자 김삼목을 방문했을 때 학생을 동반한 세 번의 방문 때²⁸⁾마다 그는 학생들에게 특유의 보학담 구연방식을 보여주었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새 방문자(1명)의 모친 성씨(안동권)를 물음 → 안동권씨 칭송 → 권씨가에서 9명의 군(君)이 배출된 사실 설명 → 권씨의 시조가 신라에 있음을 언급하고 그 이름을 거론
- (2) 새 방문자(2명)의 성씨를 물음(밀양손/안동김)(안동김은 자신과 동성동본이므로 손씨에게만 관심을 보임) → 밀양손씨 칭송 → 손순매야담 길게 구연 → 손씨의 근원 언급 → 상대성씨 거듭 칭송
- (3) 새 방문자(2명)의 성씨를 물음(평산신씨 장절공파/함창김씨) → 신승겸 이야기 자세 구연 → 함창김씨를 포함하여 김씨는 다 신라족임을 설명 → (다른 화제를 말하다가 다시) 평산신씨 칭송 → (다른 화제를 말하다가 다시) 신씨는 평산/고령 두 파임을 설명하고 신숙주(고령신씨)를 폄하하면서 그 부인의 미담을 말함 → (다른 화제를 말하다가 다시) 신씨는 두 파밖에 없음을 설명

이들 예에서 보듯 성씨를 확인하고, 성씨를 칭송하고, 그 유래와 관련된 사실을 일러주고 설화를 들려주는 것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세부 과정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권씨에 대해서는 인물이 잘된 사실(9명의 ‘君’을 배출)의 설명에 그치고 있음에 비하여 손씨와 신씨의 경우는 인물설화부터 들려주고서 사실에 대한 설명과 칭송을 덧붙이고 있다. 간단한 ‘사실’의 소개와 설명이 더 기본을 이룬다면 세부적이고 설화적인 내용은 가변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3)에서는 몇 개의

28) 첫번째는 국문학과 학부생 최00, 두번째는 교육대학원생 김00·손00, 세번째는 대학원생 신00·김00이 동행하였다.

보학담 제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화제들로 옮겨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상묵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의 뿌리가 언제나 보학담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다른 뚜렷한 증거이다.

다른 예를 더 보기로 한다. 김상묵은 방문자들 개인에 대한 보학담이 소진되자 위에 언급한 《동영보회》를 방문자들에게 내보이고 이것을 한 장씩 넘겨가며 성씨별 주요 인물을 확인해보이면서 보학담을 구연했고, 전체 116개 성씨를 짚어내며 해당 성씨에 대한 보학담을 구연해 나갔는데 여기에서도 그는 성씨별 보학 제제를 거론한 숫자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극단적으로는 아는 제제가 없다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²⁹⁾ 적게는 한 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 제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³⁰⁾이 그것이다.

두번째는 사실성의 제제든 설화성의 제제든 모든 등장인물에 대하여 되도록 성관(姓貫)을 밝히려려고 한다는 점이다.³¹⁾ 〈고조선과 삼한 역사〉 이야기에서 여러 인명에 대하여 성관을 대는 것이나 〈영월엄씨〉 보학담에서 문종(文宗)의 여러 비(妃)에 대하여 성관을 대는 것 등이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주인공만이 아닌, 수많은 등장인물에 대하여 성관을 기억하여 밝혀 구연하는 것은 예사 기억력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의 보학 제제에 대한 해박성과 보학담에 대한 뛰어난 기억력이 잘 발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점으로 하여 그의 보학담은 부분 표현의 구체성을 높여주며 사실성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점은 그가 구연하는 이야기가 보학담다운 맛을 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충효와 같은 유교적 이념성을 강하게 드러내려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의 성장 배경이나 이력으로 볼 때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는데, 그의 이러한 이념적 성향은 특히 충신/역신의 인물담에서 강렬하게 드러난다. 위에서 잠시 말한바 계유정란과 관련, 사육신을 옹호하고 세조에 아부한 인물은 극히 미워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는 계유정란 피화(被禍) 인물인 사육신과 생육신들에 대해서는 높이 칭송하는 반면, 정란에 가담하여 세조를 옹호한 인물들은 극히 미워하여 모두 ‘고약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죽음으로 직언한 박태보 같은 간신(諫臣)이나, 효자 손순 또는 홀어머니의 사랑에 감복하여 벼슬로 효도를 한 홍서봉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감동적으로 묘사하여 구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29) 咸城魚氏의 경우가 그것이다.

30) 한 가지만 언급한 경우는 다수를 보이며, 4가지(남양홍, 진주강, 기계유) 5가지(남포백)는 각각 3개와 1개의 예를 보이고 있다.

31) 그는 대개 인간관계(훈인, 사제, 당파)도 함께 주목하고자 한다.

네번째는 남인으로서의 당색이 은연중 반영되고 있는 점이다. 그는 조사자와 처음 만난 날에도 예송 전후기 역사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꺼냈는데, 뒷날 허미수 선생 탄생 이야기를 따로 구연할 때에도 굳이 예송 삽화를 넣어 자세히 서술해 보였고, <평강채씨> 보화담을 구연할 때에도 부분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거듭 보여주었다. 이들 이야기의 핵심은 우암의 죽음으로 예송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에 있다. 처음에는 남인과 허미수가 물리고 탄압을 받았지만 결국 예송에서 이겼고, 우암의 죽음으로 최종적으로 남인이 승리했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인이 우암을 죽였다는 세론을 굳이 부정하려 하지 않으며, 더하여 남인과 북인은 아무 허물이 없다는 사실을 첨언하는 태도를 잊지 않는다. 예송을 매개로 허미수와 우암을 대립적인 두 인물로 설정하고 있음이나 우암의 죽음을 다름 아닌 예송의 결과로 해석하고 그로써 남인이 예송에서 이긴 것으로 보는 사건 구도는 전형적인 남인 쪽의 예송과 노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인이 폄하하는 것³²⁾과는 달리 허미수를 극히 훌륭한 인물로 높이는 반면³³⁾ 우암은 잘못된 예론을 고집하여 국례를 그르친 인물로 폄하하고 있음도 그러한 관점의 연장이다. 그의 이러한 남인 중심적 사고는 퇴계를 높이고 율곡을 낮추는 시각을 보여주는 데에서도 드러나는데, 퇴계의 학설이 이미 정설을 이룬 것임에도 불필요하게 우암이 율곡의 학설을 받아 내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 때문인 듯, 그의 보화담이나 인물담을 보면 전반적으로 노론쪽 보다는 남인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당색성은 노론보다는 남인 쪽 성향이 강한 그 자신의 가문적 전통성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이는 대체로 노론보다는 남인의 당색이 강한 공주 서북쪽과의 교류가 많았던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5. 김상묵과 그의 보화담의 의의

이제까지 살핀 결과로 보면 보화담은 구연 제재인 설화[텍스트]보다 구연되는 방식이 더 중시되어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화담 이야기꾼은 보화적 담화를 잘 하는, 혹은 잘 구연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구연 결과가 곧 보화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화담 이야기꾼은 특정한 유형의 설화를 잘 구연해내는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거기에 잘 어울리게 담화를 구연으로 잘 수행해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보화담 이야기꾼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32) 노론 측에서 “허미수의 눈썹에서 새 세끼가 쳐 나갔다”는 비난성이 말이 있다고 한다.

33) 김상묵이 구연한 삼척의 퇴조비 전설도 같은 시각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자질은, 제재에 대한 기억력이나 표현기교 그 이상의, 보학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나 보학적 사고에 대한 공감도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요약하면 보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보학제재를 상황에 맞게 동원하여 사실로서의 지식과 이야기로서의 흥미성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이 보학담이며, 그것을 잘 달성하는 사람이 능숙한 보학담 이야기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보학담이 위와 같은 성격을 띠는 만큼, 그것이 지니는 의미도 일반 설화의 구연방식이나 그 목적과는 얼마간 다른 측면이 있다.

첫째로 보학담은 설화 제재에 대한 관심이나 그것이 지닌 흥미성보다도 이야기 청자인 상대방의 존재와 그의 성씨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한다. 청자의 성씨가 무엇이고 나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야기판이 가변성을 띠며, 보학담 제재의 구성과 구연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로 보학담은 상대와의 친교가 구연행위의 중요한 기능이 된다. 보학담 구연에는 이야기 구연보다도 청자인 상대와의 밀착된 관계가 선행된다. 보학의 출발은 친밀한 인사하기의 기본이자 그 확대이기도 하다. 보학담의 성립은 상대에 대한 친근감이나 유대감을 도모하려는 관심에서 촉발되며, 그러한 조건이 높을 때 이야기꾼의 보학담 구연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구연의 효과도 높게 달성된다.

셋째로 그러한 친교는 기본적으로 양반가문으로서의 동류의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보학담에 관심이 큰 사람일수록 대개 자기 성씨에 대한 깊은 긍지를 지닌 사람들이며, 일반 성씨들에 대한 여러 보학 지식은 곧 자신의 씨족과 인물에 대한 긍지감이 기반이 되고 있다. 때문에 보학담 이야기꾼은 상대가 양반가문이고 잘된 집안이란 사실을 되도록 추어주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넷째는 상대에게 조상에 대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도성도 보학담 구연 목적의 하나라는 점이다. 보학담에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연대, 왕력, 명호, 다른 인물과의 관계, 혼맥이나 당파 및 사제 관계 등 수많은 사실 지식들이 동원된다.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에 서툰 청자들에게 보학담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긴요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기회도 된다.³⁴⁾ 보학담이 지닌 사실적 제재 측면이 아니라 흥미성이 높은 설화적 제재 쪽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 이야기꾼들로부터 많은 청자들이 흔히 유식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다섯번째는 부분적으로 그는 역사지식의 제공자라는 의미도 실현한다는 점이다. 보학담 이야기꾼의 인물담은 곧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며, 주된 인물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34) 보학담 이야기꾼이 흥기가 좋고 유식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끌어들이고 사실과 사건을 자세히 다루다 보면 흔히 이야기가 길고 복잡하게 펼쳐지게 마련이며, 이로써 그러한 이야기는 인물역사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들 이야기꾼이 이야기도 잘 하고 유식하기도 하다는 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여기에 있다.

한국의 보학담은 조선조 이래 양반 관념의 확대와 그로 인한 족보 중시 풍조와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합동가승보가 양반사족 사이에 일반화되어 나간 것은 대략 17세기 후반 부터라고 하며,³⁵⁾ 이는 인조~경종 연간에 벌열이 번성한 현상³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씨족의 벌열화는 씨족에 따른 자긍심을 더욱 높여주었을 것이며, 그러한 자긍심은 곧 조상에 대한 보학에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족보 간행을 촉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더욱 깊어진 보학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유력 가문의 계보를 중심으로 모든 성씨들을 망라한 만성보(萬姓譜)류가 거듭 출현하는가 하면, 당적(黨籍) 내력을 계통화 하여 기록한 당적보류, 집안별로 배출된 명현들의 계보를 간추려 편찬한 명현보류와 성현보류 등으로 분화되기도 했다.³⁷⁾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점점 “보학은 사대부의 기본교양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가 또한 보학자였다. 어느 지방에 가더라도 보학에 밝은 사람은 있었으며 보학에 이름을 남긴 사람도 많았다.”³⁸⁾ 족보의 간행은 18~19세기를 넘어 1900년대 이후에 이르면서 더욱 활발해졌고,³⁹⁾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정밀해진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역대인물을 망라한 『만성대동보』(1931)가 나오기도 하고, 찾아보기 쉬운 『전고대방』(1924) 같은 사전적 체제로 진화되고 변이된 방식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조 이래 근래까지 한국사회는 족보의 나라를 지향해 왔다고 하여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족보를 중시하는 풍조는 족보지식과 족보담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족보가 거의 전 씨족으로 확대됨에 따라 족보담도 더욱 일반인의 생활 상식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그러한 추세와 병행하여 보학담이 주로 양반층 중심의 지식과 담론의 소재로 이용되던 조선 초기나 중기에 비하여 점점 상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상민들에게도 보학담은 자신의 교양 수준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학담은 하층민이 상층민에게,

35) 송준호, 『한국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31쪽.

36) 차장섭, 『조선 후기 벌열 연구』, 일조각, 1997, 297쪽.

37) 정승모, 『한국의 족보』, 이화여자대학교, 2010, 63쪽.

38) 같은 책, 44쪽. 이 책에서는 이 시대의 저명한 보학 대가로서 류희훈(1500~1562), 정근수(1538~1602), 심희세(1601~1645), 조종운(1607~1683), 정시술(1600년대 중반), 임경창(1600년대 후반), 이세주(1600년대 후반~1700년대 초반) 등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39) 1920년에서 1929년에 이르는 동안의 도서 출판 건수를 보면 매년 제1위를 차지한 것이 족보였으며, 1920년에 63건이었던 족보 출판이 1929년에는 178건이었다고 한다(정승모, 『한국의 족보』, 이화여자대학교, 2010, 54쪽).

나그네가 주인에게, 심지어 떠돌이 행인이나 장사치가 주인에게 무식꾼이라는 평가를 면하고 교양인으로 인정받는 기본 상식이 되어주기도 했던 것이다. 김상목이 나고 자란 시대는 근현대 교체가었고 이때는 이미 탈속보 시대라고 할만한 시기였다. 그러나 그는 현대기를 살아야 했음에도 씨족적 전통, 가정적 배경, 이념적 성향, 유년기 체험과 교육 등 여러 조건이 지니는 특징으로 하여 족보적 사고에 충실하고 족보담의 사회 문화적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하는 근대기 혹은 그 이전 시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양반의 하나인 안동김을 씨족으로 하고 있고, 문한가를 자부하는 서당 훈장 가정에서 났으며, 조부가 왜경에게 탄압을 받은 가정적 상처로 하여 배일의식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양반층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글사랑에서 일찍부터 예절과 글과 교양을 익혔으며, 장년기에는 종사(宗事)에 관여하면서 보학과 가깝게 생활했다. 대물림을 해온 그의 집 글사랑방은 오랫동안 수많은 선비와 문인과 과객들이 출입하면서 보학담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지식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장소였고, 심지어 떠돌이 붓장수가 방문하여 어린 김상목과 사랑 마을꾼들 앞에서 보학담과 역사인물담 등 여러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던 곳이기도 했다. 그 곳 글사랑은 어린 김상목이 보학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연 체험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곳이고, 그러한 경험은 그의 말과 입을 통한 본질적인 예능감각을 다름 아닌 보학담 구연방식을 정착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유달리 강한 이야기 구연 욕구를 보여주고 있음은 바로 이른 시기에 이미 남다른 이야기 체험 속에 자랐던 성장배경과 뿔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적 영향으로 하여 그는 강한 구연욕구, 많은 구연 목록, 독자적인 구연 방식 등 이야기꾼에게 필요한 요건들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남다른 글사랑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이 그만의 운명이었다면, 그래서 유다른 보학담 이야기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거의 필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는 이야기 기호와 구연 능력 면에서 남다른 면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이전 시대 선비들과는 달리 유랑 경험도 없고 필상 경험도 없으며 사랑방 순회 방문 경험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처한 새로운 시대에 따라 다소 달라진 이야기 구연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보학담 구연을 실현해 나갔다. 씨족의 종사 때문에 만나던 사무실, 주위 벗과의 교제, 유도회원들의 모임, 향교와 서원, 충효교실, 혹은 오다가다 만나고 차에서 만난 행인이나 학생들에게, 심지어 식당 옆자리 사람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보학담을 구연하곤 한다. 때로는 외면당하고 무시에 가까운 냉대를 당하면서까지 그는 자신의 그러한 기능을 실현해 왔다. 그런 결과 그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그 방면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판도 얻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높아질수록 그의 족보담 청중층은 좁아지고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약해졌다. 자신이 고령화되면서 교제 범위가

좁아지고 지우들도 점점 줄어들 것인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⁴⁰⁾ 그렇지만 그의 이야기 구연욕구마저 약화된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욕구를 때로 그의 집에 놀러오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실현해 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관심도가 전만 못해 그는 탄식하며 실망하곤 한다. 그 이유를 그는 자신에게 찾으려 하기보다 요즘 사람들이 “구학(舊學)이 설어서” 그렇다며 청자들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에게 보학담의 구연은 단순한 이야기 하기를 넘어 구학-즉 유학적 전통-의 종합적 발휘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이제 그는 심신이 많이 쇠하여 바깥출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거기에다 기억력도 약화되고 이야기 구연의 유창성도 전만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보학 이야기꾼으로서 김상목의 보학담 이야기 구연 기회는 시대의 추세에 따라 갈수록 위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양반관념과 보학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반면, 새로운 방향에서의 국민 교육이 확산되고 대중매체의 영향에 따라 상식 수준이 높아진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러한 환경이 갈수록 빨라지고 심해지는 것이 미래의 현실일 것임을 고려하면 김상목은 과거의 이야기 구연 전통을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는, 거의 최후의 일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하다. 지난 시대 전통문화의 한 모습을 잘 유지해 왔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현시대를 동시에 체험하고 있는 인물이 김상목인 셈이다. 여러 외면적 배경과 내면적 요인 위에서 보학담 이야기꾼으로서의 개성적 측면과 시대 사회적 변화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지닌 보학담 이야기꾼으로서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6. 맺음

위에서 살핀 것처럼 김상목은 보학담의 관습성을 깊이 답습한 위에 개인적 취미가 가미되어 이루어진, 보학담 이야기꾼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보학담 구연관습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담화관행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그것만의 독자적인 기능을 이루어 왔고, 이로써 보학담 이야기꾼의 존재도 낱게 되었다. 김상목은 그러한 보학적 전통성을 체득하고 지속하기에 매우 적합한 가정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경험이 유소년기에 이루어짐으로써 보학담 구연 문화가 그 자신의 예능적 취향이나 이야기 구연의 기반이자 중심을

40) 그와 친한 사람들은 주로 유도회 회원이고, 그중 가장 친했던 사람은 황홍주였다고 한다. 그를 가장 절친으로 꼽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주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가 사별하자 부인을 잃은 것 다음으로 애통해했다고 한다.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기에 유교 이념에 충실하게 살아온 그 자신의 경험적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그러한 유소년기 이후의 보학담 구연 관행을 더욱 강하게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처하고 경험한 가문적, 개인적 특수성이 근대를 극복하고 현대를 살아야 할 생애였음에도 그로 하여금 전근대를 따를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고, 바로 여기에 그가 완고하고 충실한 보학 이야기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이야기꾼 역사의 흐름 위에서 미래에 김상묵과 같은 인물이 또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 앞으로 순수 학문으로서의 보학은 발전한다 해도 일상속에서의 보학담은 쇠퇴할 것이다. 김상묵이 묵수해온 것과 같은 보학적 가치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나, 그것이 사회와 집단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작용하는 사회는 점점 약화되거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김상묵 처럼 보학문화에 충만하여 보학담이 대화와 친교의 중요한 방편이 되고 거기에 깊이 몰입하는 인물형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겨진다. 민주주의의 이념이 더욱 누구에게나 생활이념으로 내재화 되고 개인주의의 확산이 갈수록 심해갈 것이란 점도 여기에 부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초보적인 기능에서 보면 보학은 상대와 인사를 교환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면에서 그것은 양반 중심적 권위주의의 산물로서 관직 인물에 대한 선망이며, 가문의 인물 자랑이고, 양반으로서의 동류의식의 강조이자, 당파적 유대감 혹은 배척의식의 확인이며, 지적 과시이기도 하다는 등의 복합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가문에서 배출된 명인을 통하여 씨족적 긍지를 확인하려는 사회적 욕구는 어느 때나 유지될 것이다. 보학 전통과 보학담이 지니는 그러한 일상적인 기능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기능은 종래 수직적 가치관이 수평적 가치관으로 급속히 바뀌는 추세 속에서 유교적 가치관의 약화, 인간관에 대한 전통적 관념의 변화 등으로 하여 점점 약화되어갈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에 ‘보학담’ 이야기꾼의 재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념화된 보학담이 차지했던 자리는 일반적인 가문(家門) 이야기 정도가 대신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보학담은 갈수록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인물담으로서의 단순한 조상담이나 선조담 수준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주제어

보학, 보학담, 보학담 이야기꾼, 보학담 제재, 보학문화, 사실성 제재, 설화성 제재

참고문헌

《東英譜彙》(저자 미상, 필사본)

송준호, 『한국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차장섭, 『조선후기 벌얼 연구』, 일조각, 1997.

정승모, 『한국의 족보』, 이화여자대학교, 2010.

김영희 외, 『숲골마을의 구전문화』 - 구전이야기에 초점을 둔 민족지적 현지조사 연구, 이회, 2006.

김영희, 「남성 토박이 이야기꾼의 범주 구성과 이질화 양상 연구」, 『민속연구』 제26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3, 31~78면

만성보와 보학문화

발행인 : 박용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발행 : 2016. 11. 30.

발행처 :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연락처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
042,582,4445

전시총괄 : 오옥환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임경섭 (한국족보박물관장,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과장)

전시진행 : 조원세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과 뿌리공원담당)

전시기획 : 심민호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황인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학예연구원)

오세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학예연구원)

행정지원 : 박상돌, 조성기, 임수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관리원)

최재현, 구윤하, 최영모, 이정석, 김성태, 손정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과)

전시자문 : 성봉현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위원)

이야기꾼 관련 자료 제공 : 황인덕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획, 디자인, 인쇄 : 원아이 ONEI 042,585,0918

발간등록번호 56-3650107-000009-01

ISBN 979-11-87852-00-1 (93990)

본 도록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과 저자에게 있습니다.

본 박물관의 허락 없이 출판은 물론 사진사용, 영상물 제작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만성보와보학문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 (침산동 산34)

Tel. 042.582.4445 한국족보박물관 홈페이지 : <http://한국족보박물관.한국>

